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가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3월 7일(음력 1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618 호

비구니스님 32명 릴레이 법문

‘연화법석’ 연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법화산림법회’ 11일부터 32주간 법룡사서 개최

대승불교의 최상승 법문 <법화경>이 우리 시대 비구니계를 이끄는 서른 두명의 비구니스님들에 의해 설해진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관세음보살 32응신을 상징하는 숫자인 서른 두 명의 비구니 법사를 초청해 법화산림법회를 봉행한다.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법당에서 열리는 법화산림법회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이후 처음으로 여는 대형법회여서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법회에는 조계종 비구니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급 스님 32명이 법사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화경>의 요체를 비롯해 총 28품을 각 품별로 나눠 강설할 32법사는 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 운문사 청암사 봉녕사 동학사 삼선승가대 등 5대 비구니 강원 학장 스님,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이 중심에 선다. 또 비구니회 임원 스님과 14개 지회에서 추천하는 스님들이 법사로 나설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 성정 스님(前 조계종 문화부장)은 “전국비구니회 발전과 불자님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회장 명성 스님의 원력으로 행사가 준비됐다”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법화경>의 ‘일불승(一佛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02) 3411-8103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

3 · 1절 88주년을 맞아 명동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문성)와 광복회(회장 김국주,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2월 28일 서울 명동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운동 및 배포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인기그룹 SG워너비(두번째줄)와 불자 가수 장미화(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탤런트 정호근, 개그맨 최왕순씨 등이 참여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는 6000여장의 태극기와 ‘제 2광복 새 정신운동 취지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글= 김주일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병술년 동안거 해제법어 4면

새연재 ‘종교자유칼럼’ 23면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I Love Buddha / 모르는 줄 아는 것

용정운(www.zentoon.com)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필기고사 문제 및 정답

조계종 포교원이 2월 25일 실시한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 문제 및 정답이 발표됐다. 고시에는 5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3월 8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g)를 통해 발표된다.

1. 다음 중 불교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
② 일체는 지난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③ 일체의 모든 것은 우연의 소산이다.
④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최초의 비구 – 교진여 등 5비구
② 최초의 비구니 – 마하파자파티
③ 최초의 우바새, 우바이 – 야사의 부모
④ 최초의 재가 신도 – 유마거사

3. 연설 중에는 말과 태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태도의 기본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복잡한 것을 피한다.
② 언어표현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
③ 동작은 장소에 비례하나 기본적으로 큰 것을 택한다.
④ 동일한 연설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행한다.

4. 불교의 교단을 승가라고 한다. 승가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는?
① 화합을 실현하는 단체 ② 외도를 물리치는 단체
③ 기도하는 단체 ④ 고행하는 단체

5. 다음 한국을 대표하는 삼보 사찰이 아닌 것은?
① 불보종찰 통도사 – 진신사리
② 승보종찰 송광사 – 16국사
③ 법보종찰 불국사 – 석가탑
④ 법보종찰 해인사 – 팔만대장경

6. 다음 불교의 4대 성지가 아닌 것은?
① 구시나가라 ② 녹야원 ③ 아잔타 ④ 룸비니

7. 다음 중 탑(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탑이란 원래 부처님의 사리(舍利)를 봉안한 것이다.
② 번역하면 무덤, 묘(廟), 영지(靈地)를 의미한다.
③ 중국에서는 전탑(塼塔), 우리나라에서는 석탑(石塔), 일본에서는 목탑(木塔)이 발달하였다.
④ 주로 사찰 경내 주변이나 외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8. ‘목탁’은 수행과 경책의 법구로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휴대용 목탁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불교의 지혜가 돋보이는 법구이다. 다음 중 목탁의 사용의미가 아닌 것은?
① 예로부터 전통적 불교 의식에 사용되었다.
② 독경과 염불 등의 의식에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데 사용되었다.
③ 목탁을 울려서 사부대중을 모이게 하는 신호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④ 혼란하고 산만한 정신을 깨우치게 하는 수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9.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서 매 법회시마다 확인하여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다. 아래의 보기 중 점검 및 논의사항으로 우선 강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출결상태 및 건강 확인
② 월간회비 납부명세서 확인
③ 프로그램 개발 회의
④ 주간 변동사항 확인

10. 불교용어에 대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아주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즉 허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행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한다.”
① 발원 ② 서원 ③ 기원 ④ 참회

11. 불교의식의 한 형태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재현한 의식이다. 즉 온 세계 모든 성현들과 스님들을 청하여 봉양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시방의 외로운 혼령들을 천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① 예수재 ② 영산재 ③ 수륙재 ④ 49재

12. 어린이 지도자의 자세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시오.
① 부처님 제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해야 한다.
②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③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④ 수행하는 마음으로 묵언을 하며 근엄해 보이게끔 한다.

13. 아이들은 이런 지도자를 좋아한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시오.
① 법회 날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려 주는 교사
② 어린이의 장점부터 먼저 눈에 띄는 교사
③ 부처님의 교리만을 열심히 설명해주는 교사
④ 언제나 웃음 가득한 얼굴의 교사

14. 어린이 법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린이와 지도자의 공통된 성불이 목적이다. 성불을 우리말로 옮긴다면 ‘부처님 닮아가기’라 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가 절을 찾아 법회를 여는 것은 모두 이 닮아가기의 과정이고 이 닮아가는 노력인 수행활동을 통하여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 중 잘못된 것을 선택하시오.
①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불단의 화려함과 불보살님의 화려한 장엄구들을 잘 살펴서 생활에 응용한다.
② 부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 한다. 경전과 부처님 전생담, 부처님 일대기 등을 통하여 부처님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행동, 자주적이며 용기 있는 행동을 닮아야 한다.
③ 부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말씀의 내용 즉 경전을 실천으로 옮기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
④ 부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한다. 부처님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이 세상을, 친구와 스승을, 가족 등등의 인간관계의 이치를 터득함에 있어서 어떤 사고체계를 열어 가셨나를 파악하게 한다.

15. 수드라 출신의 샤카족 궁중 이발사로서, 부처님이 성도 후 카필라성에 돌아왔을 때 샤카족의 귀공자들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부처님께 출가하는 것이 부러워 한발 앞서 출가하여 지계제일(持戒第一)의 제자가 된 분은?
① 부루나 ② 아난 ③ 목건련 ④ 우팔리

16. 마음을 다해 바치는 정성스러운 공양은 삼륜(三輪)이 청정할 때, 크나큰 공덕이 뒤따른다고 한다. 그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은?
① 주는 자 ② 받는 자
③ 주고받는 장소 ④ 주고받는 물건

17. 다음은 여러 경전에서 언급되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① 연기설 ② 전변설 ③ 적취설 ④ 단멸석

☞ 2면에 계속

행

초 대 합 니 다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101일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해단식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단식 ● 일 시 : 2007년 3월 10일 토요일 11시 ●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 문 의 : 동봉스님 010-4800-0882

행

국토대장정 최종 일정표 [130km]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3월 5일[월]	잠실 – 태 릉 – 4.19탑		– 정 릉	27km
3월 6일[화]	정릉 – 청 와 대 – 시청앞		– 서대문	23km
3월 7일[수]	서대문	상 암	일산 지장도량	25km
3월 8일[목]	지장도량	–	금촌 파주	20km
3월 9일[금]	금촌	오두산성	문산읍	27km
3월10일[토]	문산읍	평화통일사	임진각	8k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사회복지타운 건설 초석 다진다”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 기자간담회서 ‘종단 비전’ 밝혀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사진)는 2월 28일 총지사 법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사회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10년 계획으로 시설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원송 정사는 “총지종 사회복지타운에는 창종 당시부터 교도로 활동해온 분들이 평생 불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려운 노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시설내용은 노인요양시설은 물론 복지관, 수행시설 등”이라고 설명했다.

원송 정사는 “현재 교도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올해 종조 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맞아 젊은 교도 확충을 위한 현대적 포교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 교도 발굴을 위해 학비지원과 청년회 창립, 가족법회 시행, 통신원 제도 마련 등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총지종의 발전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됐던 도제 양성과 관련해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에 6명이 수학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송 정사는 중앙과 사원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일선 스승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특히 불상봉안문제의 경우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으며, 3년 임기제의 경우도 임기중간에 조율하고, 각 사원에 만다라를 봉안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만족 · 감동 위한 108프로젝트 가동”

東大 오영교 총장 취임…2일 입학식 거행

동국대(총장 오영교 · 사진)는 3월 2일 교내 중강당에서 200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신입생 3137명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에서 오영교 총장은 “이제 대학인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며 “새로이 얻게 된 자유를 고교생 시절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과 지성을 습득하는 데 최대한 활용할 것”을 신입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달 26일 중강당에서 제15대 홍기삼 총장 이임식 및 제16대 오영교 총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국대는 내부고객인 학생, 교수, 직원이 만족하고, 외부 고객인 기업과 학부모가 감동하는 그런 대학이 돼야 한다”며 “이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08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업안을 만들어 3월부터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중앙선관위 권한 강화”

종헌종법기초위 의결

파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는 2월 28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검토, 중앙선관위의 지휘 · 감독권을 강화하고 선관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로 의결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 이탈리아

문화재보존 심포지엄 개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이탈리아 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4월 문화재 보존과학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25일에는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방문, 28일까지 이탈리아측 발표자들의 템플스테이 참가 등으로 진행된다. 이탈리아는 문화재보존과학 개론과 나무 · 지류 분야를, 한국은 사찰문화재의 현황과 사찰건축 · 불화 등의 보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18. 선(禪)의 기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고대 인도의 명상법인 요가(yoga)에서 비롯되었다.
② 요가라는 말은 명상을 통하여 오감(五感)을 제어하고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③ 요가는 삼매(三昧), 선나(禪那)라는 말로, 불교에서는 선(禪)이라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④ 붓다의 선정은 명상을 통하여 브라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고 하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경지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다음 중 불교의 4대 명절에 대한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① 부처님 탄신일 – 음력 4월 8일
② 부처님 출가일 – 음력 2월 8일
③ 부처님 열반일 – 음력 3월 8일
④ 부처님 성도일 – 음력 12월 8일

20. 공양을 올리는 것은 재가불자의 기본이다. 다음 중 육법공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차 공양 ② 꽃 공양
③ 향 공양 ④ 옷 공양

21. 다음 서술하고 있는 설명은 팔정도의 덕목 중 어떤 내용인가 바른 것을 고르면?
바른 생활이다. 옳은 일에 종사하고 몸과 말과 마음의 신구의(身口意)삼업을 청정히 하면서 바로 사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생명에 임해야한다.
① 정정(正定) ② 정명(正命)
③ 정정진(正精進) ④ 정견(正見)

22. 다음 법구 중에서 그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범종 – 천상과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② 법고 – 땅속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③ 목어 –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④ 운판 –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하여

23. 법당에는 일반적으로 삼존불을 모신다. 본존불과 좌우 배치되는 불보살이 잘못된 것은?
① 석가모니불 – 문수보살, 보현보살
② 아미타불 –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③ 약사여래 – 일광보살, 월광보살
④ 미륵보살 – 관음보살, 지장보살

24. 다음 중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선정인 ② 지권인
③ 항마촉지인 ④ 천지인

25. 캠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② 공동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참가자의 흥미, 경험, 요구 등을 충분히 살리도록 한다.
④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편리 위주로 한다.

26. 찬불가 율동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면?
① 노래 선정을 잘해야 한다.
② 모든 율동을 정해진 동작으로 따라 한다.
③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
④ 동작은 간단하면서 쉬운 것으로 하고, 난해한 동작은 피한다.

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잘못된 것은?
종헌 제1조 : 본종은 (①)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②)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③)의 중천을 거쳐 태고 (④)의 제종포섭으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그 종맥이 면면부절한 것이다.
① 대한불교 조계종 ② 도의국사
③ 보조국사 ④ 원효대사

28. 다음은 한글 반야심경의 구절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 )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라.
① 신비한 ② 큰 ③ 위대한 ④ 수승한

29. 금강경의 첫 구절이다. 이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은?
부처님께서 1,250명이나 되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때에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걸옷을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으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얻으셨습니다. 밥을 얻으신 후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시어, 식사를 마치신 후, 걸옷과 밥그릇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시고, 결가부좌로 앉으셨습니다.
① 설법한 분 ② 설법을 들은 분
③ 설법한 장소 ④ 설법을 청한 분

30. 예불문의 한 구절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 갈 알맞은 말은?
唯願 無盡三寶 大慈大悲 ( )
冥熏加被力 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成佛道
① 觀世音菩薩 ② 五蘊皆空
③ 受我頂禮 ④ 自利利他

31. 다음 (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진리의 본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 )이라고 한다.
*( )은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적에 세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받는 부처님을 말한다.
*( )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낸 부처님을 말한다.
① 보신불–화신불–법신불 ② 법신불–보신불–화신불
③ 법신불–화신불–보신불 ④ 보신불–법신불–화신불

32. 모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간의 조합이 중요하다. 불교프로그램 작성 시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도자 ② 방청객 ③ 참가자 ④ 환경

33. 천수경의 진언의 명칭과 진언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호신진언 – 옴 부림
② 참회진언 – 옴 아라남 아라다
③ 정법계진언 – 옴 남
④ 개법장진언 –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34. 법회나 신행프로그램 진행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평가 – 운영 – 계획
② 운영 – 계획 – 평가
③ 계획 – 평가 – 운영
④ 계획 – 운영 – 평가

35. 모든 경전을 독경하기 전에 읊는 게송이다. 이 게송의 명칭은?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義)
① 無常偈 ② 開經偈 ③ 涅槃偈 ④ 法身偈

(단답형 각 2점)

36. 주로 불교의 수계식에서 사용되는 자세로 양무릎을 땅에 붙이고 다리를 세운 채 합장을 하여 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7.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를 형상화한 법신불은?

38. 야외법회시나 대형불교행사시 외부에 설치하여 법회를 보며 ‘부처님 오신날 행사’시 대웅전 밖에 설치하여 많은 사부대중이 법회를 볼때 사용되어지는 불교 그림으로 평상시는 대웅전 뒤편의 ( ) 함에 보관되어지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종헌 제 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 ( )과 ( )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 한다.

40. 다음은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으시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 ) 구경열반…

41.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덕목을 쓰시오.

42. 보살의 6가지 실천 행동 즉, 육바라밀의 덕목을 쓰시오.

43. 다음은 8고(苦)를 나열한 것이다 빈칸(가), (나)를 채우시오.
8고(苦)는 생(生), 노(老), 병(病), 사(死), ( ), 원증회고, 구부득고, ( )이다.

44. 다음에서 설명한 수행방법을 쓰시오.
이 수행법은 조사선이 강조한 본래 부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아 조사스님의 깨친 자리를 바로 보인 말과 생각의 길이 끊긴 화두를 정형화하여 그것을 통해 깨닫는 수행법이다.
이 수행법은 화두를 들고 거기에 간절한 의심을 일으켜 삼매에 든 상태에서 화두를 타파하여 자기 자성을 보고 깨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을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한다.

(논술형 7점)

45. 어린이법회 연간 계획 작성시 월별 주제를 정하고, 주단위로 소주제를 정하여 법회를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법회 3월 달 주제를 정하고, 월 주제에 맞게 주단위로 소주제를 정하시오. 자기가 정한 주제 흐름에 맞으면 인정

정답
1.④ 2.④ 3.④ 4.① 5.③ 6.③ 7.④ 8.① 9.② 10.④ 11.② 12.④ 13.③ 14.① 15.④ 16.③ 17.① 18.④ 19.③ 20.④ 21.② 22.② 23.④ 24.② 25.④ 26.② 27.④ 28.① 29.④ 30.③ 31.② 32.② 33.③ 34.④ 35.② 36.호궤합장 37.비로자나불 38.괘불 39.금강경, 전등법어 40.원리전도몽상 41.고, 집, 멸, 도 42.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반야) 43.애별리고, 오음(온)성고 44.간화선 45.예시) 월주제 : 발심의 달<초발심, 공경> 첫째주 : 삼보, 삼귀의 /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구들과 인사하기 or 조나누기 둘째주 : 절이란 / 찬불가배우기 셋째주 : 사찰예절 / 사불 넷째주 : 사대명절 / 생일법회

■ 원통불법연구회 ■

원통불법의 재천명 제2차 학술세미나

귀의 삼보하옵니다.
이시대의 진정한 수행자였으며, 모든 불자들에게 모범적인 불법을 가르치셨던 무주당 청화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후학들의 힘을 모아 **“원통불법의 재천명”**의 주제를 가지고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화 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맞이하여 열리는 2차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행사안내

◆ 일 시 : 2007년 3월 10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 1부 사회 : 최주홍 – 경상대 교수
■ 2부 사회 : 송인창 – 대전대 교수
■ 3부 사회 : 강행원 – 단국대 교수

프로그램

오후 2시 – 개 화 식
오후 2시 30분
■ 제 1발표 : 청화선사 사상과 수행법에 대한 소고
(발표자 : 조은수–서울대 교수 / 토론 : 서재영–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제 2발표 : 청화선사의 원통불법과 순선사상
(발표자 : 이중표–전남대 교수 / 토론 : 최동수–동국대 교수)
■ 제 3발표 : 육조혜능을 중심으로 순선시대의 수행론
(발표자 : 손병욱–경상대 교수 / 토론 : 방인–경북대 교수)
오후 4시 30분 : 질의 및 종합토론
(토론자 : 박화문–대구대 교수, 조준호–동국대 교수)

주최 : 원통불법연구회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벽산문도회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 02)356-2001

나눔으로 교류 … "참 반갑다"

서울가든클럽, 반갑다 연우야에 기금 전달 · 의료봉사현장 참관

지난 달 1일 문을 연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 2월 24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와 이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주한 외교대사부인들의 모임 '서울가든클럽(The Garden Club of Seoul, 대표 캐롤린 라 브래쉬)'이다.

서울가든클럽은 현재 브라질, 독일, 영국 등 18개 국가의 대사부인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을 비롯한 국내 전 · 현직 장관 부인 15명을 포함한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친목모임으로 한국 알리기와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캐롤린 라 브래쉬 캐나다 대사부인과 파멜라 모리스 영국 대사부인, 나오미 알-미드하드 카타르 대사부인, 가든클럽 회원인 임화공 여사는 오전 11시,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반갑다 연우야의 무료 정기검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반갑다 연우야의 활동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회원들의 회비를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브래쉬 캐나다 대사부인은 "김의정 회장을 통해 반갑다 연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명 받았다"며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불교의료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선 단장은 "불교의료봉사의 뜻에 공감하고 기금을 전달해 준 서울가든클럽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정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이사회에서 반갑다 연우야의 검진 버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 만남을 주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달식 후 가든클럽 회원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조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설과 의료봉사활동 현장을 둘러봤다. 정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실과 탁구장, 찜질방 등의 시설을 둘러본 파멜라 모리스 영국 대사부인은 "전망과 시설이 너무 좋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도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든클럽 회원들은 "앞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가든클럽과 불교계가 함께 나서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2시간여에 걸친 방문을 마무리했다.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중 개관식을 봉행할 예정이다.(02)742-9500

여수령 기자



"불교의료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한 외교대사부인들의 모임인 '서울가든클럽(The Garden Club of Seoul, 대표 캐롤린 라 브래쉬)' 회원 5명은 2월 24일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반갑다연우야(단장 구자선)의 봉사현장을 찾았다. 사진은 캐롤린 라 브래쉬 캐나다 대사부인이 구자선 단장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귀신사 삼불좌상 등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2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전북 김제 귀신사 소장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사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歸信寺 塑造 毘盧遮那 三佛坐像)'은 17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명대의 조각양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내고자 했던 기법을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와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청소년 불교 심성 프로그램-우리도 부처님처럼>을 발간했다.

김남선 구암중학교 역사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청소년들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건강한 불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02)733-6390

남동우 기자

MBC 언론중재위에 제소

월정사, 문화재보수 지원비 보도 관련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2월 28일 문화재보수지원비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낸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 △정정보도 방송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담긴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월정사는 MBC에 정정보도와 시청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재현 실장은 "26일 방송된 MBC의 정정보도는 사과 내용이 빠졌고 오보에 대한 해명도 매우 미약했다"며 "국민들이 문화재보수지원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26일 '뉴스투데이'를 통해 "석탑보수용이 아니라 주변 경관 정비 예산이었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을 전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바로 잡는다"라고 정정했다.

여수령 기자

'禪 중심 사찰' 운영은 어떻게?

제주 원명선원 '참선포교지도자' 연수

불공이나 기도 등 기복중심의 사찰운영에서 벗어나 참선수행 중심의 사찰운영을 배워볼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3월 14일부터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봉은사 시민선원에서 '참선포교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30여 년간 재가자를 대상으로 참선을 지도하고 간화선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의 지도아래 열리는 이번 연수는 구족계 수지 15년 이상 스님 20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간화선 포교사례 성과 △간화선을 통한 바람직한 전법 · 수행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의 역할과 선정신의 확대 등을 중심으로 문답식 법문 및 정진, 점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효 스님은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스님과 참선지도를 희망하는 스님들이 간화선 수행을 탁마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간화선 지도방법, 간화선 중심의 사찰운영 방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회비 20만원. 접수는 원명선원 홈페이지(www.wseon.com)에서. 016-707-7450

남동우 기자

사찰문화음식학과 개설 동산불교대 21일 개강

국내 불교대학으로는 최초로 동산불교대학(회장 김재일)이 '사찰문화음식학과'를 개설하고 3월 21일 개강한다.

사찰음식문화학과는 1년 과정으로, 이론 강의와 실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지도교수로는 정산 스님(사찰음식전문점 산촌 대표) 등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학기당 150만원.(02)732-1206

여수령 기자

원통불법연구회, 학술세미나

원통불법연구회(회장 도일)는 3월 10일 오후 2시 '원통불법의 재천명 2차 학술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무주당 청화 대종사의 열반 4주기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청화선사 사상과 수행법에 대한 소고'를,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가 '청화선사의 원통불법과 순선사상'을, 손병욱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가 '육조혜능을 중심으로, 순선시대의 수행론'을 각각 발표한다.(02)356-2001

여수령 기자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김군자 할머니 3 · 1절날 美 청문회 보고 '민족정기…국회의원 모임' 하원의장에 성명서

"우리에게는 아직 해방도 없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참가해 위안부 관련 증언을 하고 돌아온 김군자(81) 할머니는 3월 1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열린 청문회 보고회에서 "일본은 하루 빨리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우리나라는 위안부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간 수십여 년을 외쳤지만 늘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나는 얘기였다.

2월 15일 미 하원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종군위안부 청문회가 열렸다. 1월 31일 마이크 혼다 의원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책임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 할머니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증언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2월 28일 나눔의집을 찾은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갖고, 퓔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돼 받은 상금도 전문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전달했다. 김희선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인류의 평화와 인권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3 · 1절만 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3 · 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3월 2일 "일본군이나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

할머니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지난 날 만큼이나 험난해 보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燈 경연대회 5월 7~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제8회 등(燈) 경연대회를 5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제8회 등 경연대회 작품소재는 전통등과 창작등. 작품은 구상 작품으로, 단체 행진등 부문은 올해 연등축제 참가 시 드는 등이어야 한다. 단체 행진등은 가로 · 세로 · 높이 각 50cm, 개인 창작등은 가로 · 세로 · 높이 각 100cm 이내여야 한다.

작품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4~7)에서 접수한다. 11일 심사와 14일 결과발표 후 20일 연등축제 어울림마당에서 시상한다.

남동우 기자

MBC 불교문화재 주변정비사업 관련 월정사, 도피안사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및 대국민 사과요구

MBC는 지난 2월 20일(화),21일(수) 양일간에 걸쳐 뉴스 프로그램들을 통해 본 종단 소속사찰(월정사, 도피안사)의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불법 유용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전 국민에게 내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잘못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해당사찰 및 불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도된 월정사, 도피안사의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 문화재청의 적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석탑을 고치라고 15억을 주었는데, 엉뚱하게도 석탑옆에 있는 절 건물을 고치는데 사용 됐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석탑 보수비로 15억이 책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정비 사업예산인 15억원은 2007년도 계획으로 집행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이며, 의도적인 왜곡보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사로서의 문제의식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사실을 날조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예산을 마치 불법 전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기사입니다. 특히, 월정사의 공식 취재요청을 거부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여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민주사회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MBC의 책임있는 정정보도와 대국민 사과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사가 잘못된 제보와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재된 내용이라 생각되며, 제보 및 취재과정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와 관련 자료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기 2551(2007)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대변인, 총무원기획실장 승원 합장

강원불교연합회 고문 오현 합장/ 강원불교연합회 회장 정념 합장 / 강원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강원문화재보호지킴연대 일동

연락처 - 구룡사(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 033)732-4800 / F 033)732-1211



목주도명 선사가 납자를 불렀습니다.
"대덕이여?"

담판한이 되어 앞만 보고 걸어가라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납자가 고개를 돌리니 말했습니다.
"담판한(擔板漢)이구나."

'담판한'은 널따랗고 긴 판대기를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쪽 면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한 면 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단견에 빠져있는 외골수 내지는 외고집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도 시원찮은 납자를 '담판한'이라고 꾸짖었습니다.

(中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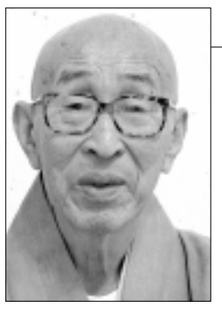
이제 석 달 공부살림살이를 마치고 동안거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해제를 해도 행동거지는 담판한이 되어 앞만 보고 걸어갈 일이지 절대로 곁눈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두 역시 담판한처럼 절대로 망상을 붙이지 말고 한 길로만 쭉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결제는 앉아서 몸을 담판한을 만드는 것이요, 해제는 서서 마음을 담판한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담판한이 되어 도반과 선지식으로부터 '정말 담판한!'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담판한을 벗어나는 도리가 참으로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담판한(擔板漢)이 낙수가(落誰家)오
일척안(一隻眼)으로 여하변(如何辨)고
심산오야월명중(深山午夜月明中)에
규곡석인심중전(叫哭石人心中箭)이로다
담판한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떨어질 것인가를
한쪽 눈만 가지고서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는가?
깊은 산 한밤중에 달은 밝은데
울부짖는 돌장승은 심장에 화살을 맞은 탓이로다.

공함이 없으니 이것이 여래 진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종 스님



청정료료(淸淨廖廖)하여 적조조(赤條條)하였구나.
수불능표(水不能漂)하며 화불능소(火不能燒)하도다.
시생영지대본(是生靈之大本)이며 위조대지고표(爲祖代之高標)로다.
소이도(所以道)로 겁화종교만사회(劫火從敎萬事灰)하여도
겁공항유일영대(劫空恒宥一靈臺)하도다.
수연(雖然) 불견사호허(不見絲毫許)하지만
유출항사묘용래(流出恒沙妙用來)하도다.

맑고 고요하여 벌거벗고 속을 다 드러내었구나.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능히 태우지 못하는 도다.
이는 중생의 근본이며, 조사의 드높은 기치로다.
그런 까닭에 괴겁의 불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더라도
공겁에는 항상 하나의 영대(靈臺)가 남아있도다.
비록 한 터럭만큼도 보이지 않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묘한 작용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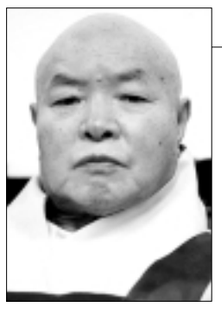
무상무공무불공(無相無空無不空)하니
즉시여래진실상(卽是如來眞實相)이라
본공지허무일물(本空至虛無一物)하되
대연수시만반형(對緣垂示萬般形)이로다.

형상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않음도 없으니
바로 이것이 여래의 진실상이로다.
본래 공함에 이르러 한 물건도 없으되
인연을 대하여 드러내 보이니 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도다.

오직 뜻 · 생각 밝기만을 구하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上略)

<주장일타>
상천월락야반장(霜天月落夜半將)
다소성채연우중(多少星彩烟雨中)
사사단절무념처(思思斷絶無念處)
최초일성만이중(最初一聲滿耳中)
서리 찬 하늘에 달은 지고 밤은 깊었는데
별빛은 자욱히 내려 촉촉이 잠겼네
생각 생각 끊어져 한 생각 없는 곳에
최초의 한 소리 귀에 가득하네

대중들이여 !
참선을 하되 안목을 바르게 하라.
성현(聖賢)의 묘법과 해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이것이 납자들의 바른 안목이니, 묘한 말과, 신통 기적이 있으면, 거기에 혹(惑)하여 따라가는 대중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천불이 출현해도, 제도치 못하느니라.

(中略)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쉬며, 공적한 자리에 들어가 공적함을 반연하여, 오직 뜻과 생각이 밝기만을 구하라,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면, 그 때에 최초의 한 소리, 귀에 가득하리라.

우후춘산화만수(雨後春山花滿樹)
청풍나갱차인연(淸風那更借因緣)
비온 뒤 봄산은 꽃이 만발 하였는데
맑은 바람은 어찌 다시 인연에 의지하리(요).

깨닫고자 하거든 분별심 버려라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혜초 스님



또 한해가 바뀌어 병술년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매번 해제일이 되면 어떤 이는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할 것이고, 어떤 이는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것입니다.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한 사람은 수행을 한답시고 간절한 생각없이 그저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일 것이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사람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진에 임했으나 이번 안거(安居)에도 크게 얻은 것이 없구나 하는 허탈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中略)

그대들이 진정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먼저 관념(觀念)의 노예(奴隸)가 되는 마음을 버리시오. 마음을 버리면 분별심(分別心)이 없어지고 분별심이 없어지며 대상(對象)과의 차별(差別)이 없어집니다.
대상과의 차별이 없어진 이상 어찌 시비(是非)가 있을 것이며, 시비가 없어진 이상 어찌 생사(生死)와 열반(涅槃), 중생(衆生)과 부처(佛),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분별과 차별이 없어진 경계(境界)가 부처가 머무는 곳입니다.

(中略)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통털어 무시무종(無始無終)입니다.
따라서 결재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대혜종고선사의 말씀대로 진정한 수행인은 때(時)를 가리지 않고 정처(靜處)와 요정(鬧井)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디 만행(萬行)을 떠나 세상을 둘러보면서 보다 큰 그릇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식 장례문화 개념 · 제도 정립해야"

이중표 교수, 불교학硏 '불교장례문화' 워크숍서 제안

"도대체 불교적인 장례문화란 무엇입니까?"
2월 24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워크숍 현장. 밤 9시까지 계속된 주제 발표가 끝나자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 前 불교학연구회장)가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는 "장법이나 장례 절차도 물론 여법해야겠지만, 그보다 불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리 · 사상적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불교식 장례 절차의 개념과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가 2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개최한 겨울 워크숍은 '불교의 장례문화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불교적인 장례'의 정의부터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 송현동 교수(건양대 예식산업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상업화로 인해 죽음에 대한 종교의례적인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며 "종교계가 앞장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는 장묘문제를 두고 고민하는데 앞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심어주는 '종교의례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송현동 교수

"죽음에 대한 인식 · 태도 바꿔야"

김달수 교수

"수목장은 친환경적인 장묘법"

이를 위해 불교학연구회는 종단이나 단체 등이 앞장서 불교식 장례문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장례방법과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본각 스님은 "사찰마다 다르게 행해지고 있는 장례법을 통일하고,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새로운 장례문화로 각광 받고 있는 수목장(樹木葬)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달수 교수(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는 '수목장의 유형과 발전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수목장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수목장은 잘못 도입될 경우 산림훼손이 나타날 수 있고, 산불위험이나 병충해에도 취약하다"며 "일부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할 경우 △집단민원발생 △분양사기 △타 종교단체에 매도 등 시설 운영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수목장 운영 주체를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바람직한 자연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서울불교문화대학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본 대학에서는 2007학년도 수행의 바쁜 일정 중이신 스님들께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 이론과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승가학과**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불교의 체계를 배울 수 있는 **불교학과**를 개설하여 공허해지기 쉬운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에 우주법계의 밝은 가르침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학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 – 주간반, 통신반 과정개설**

1) 승가학과: 2년제

2007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교과목	• 불교학 개론 • 근본불교사상 • '입보리행론(원전강독)' • 원각경 • 불교의식 (사물/조석예불)	• 불교문화사 • 치문 抄 (원전강독) • 경전개설 • 불교의식 (상주권공)	• 서장 • 유식 · 중관학 • 금강경 강화 • 불교의식 (바라, 나비춤)	• 화엄사상 • 천태소지관 (원전강독) • 법화경 강화 • 불교의식 (시련,작법,호적)

2) 불교학과: 1년제

2007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교과목	• 불교학 개론 • 근본불교 사상 • 천수경 강의	• 참선 의 • 불교문화사 • 관음경 강의 • 금강경 강의 • 법화경 요품 강의

3)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 **강의시간 및 교수진**

1) 2007학년도 1학기 강의 시간표

승가학과	교 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째주	금 2,4째주
1학년 1학기	1교시	오후2시-3시20분			특강	불교학 개론 (신규탁교수)	근본불교 (최봉수교수)	불교의식 (종일스님)
	2교시	오후3시30분-5시				입보리행론 (양승규교수)	근본불교 (최봉수교수)	불교의식 (종일스님)
불교학과	**교 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째주**	**금 2,4째주**
1학년 1학기	1교시	오후2시-3시20분			특강	불교학개론 (신규탁교수)	근본불교 (최봉수교수)	천수경 강의
	2교시	오후3시30분-5시				원 각 경 (신규탁교수)	근본불교 (최봉수교수)	관음경 (이동형교수)

2) 교수진

교 과 목	교 수 사	소 개
근본불교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박사 수료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불교학 개론, 원각경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경대학 대학원인도 · 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입보리행론 (원전강의)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 박사 수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 불교 전공
관음경 강의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 · 박사 학위. 신락원(信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의식 강의	종일 스님	1967년 월하스님 문하 입산. 1979년 통도사 강원 졸업. 1999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 이수자 지정.
특 강	교계 최고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특 전**

학 과	특 전
승가학과	**2학년 과정 이수 후 :**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추천. 전통 범음보존회원 자격 부여
불교학과	재가 불자 품수 수계 자격소정의 시험을 거쳐 포교사 및 전법사 자격 부여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내용**

학 과	승가학과 총 60명 모집		불교학과 총 60명 모집	
구 분	주간반 30명	통신반 30명	주간반 30명	통신반 30명
수업료	55만원, 입학료 10만원	60만원(통신비포함), 입학료 10만원	35만원, 입학료 10만원	40만원(통신비포함), 입학료 1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

● **응시자격** 1) **승가학과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교육 과정 중인 자(단, 은사 추천 시)
2) **불교학과 :** 불교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모든 분.

● **접수기간**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여권용)---------- 3매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홈페이지 공고**)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담당 – 송 종원**

1)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우)110-550
2)연락처 : 본 대학 교무처 ☎ 02)763-3001,0054 / Fax.02)763-5851
3)인터넷자료 : http://www.myogaksa.net 원서다운 가능
4)E-mail:yeodiamond@naver.com

● **입학일시 및 장소**

1)일시 : 2007년 4월 6일(금요일) 오후 1시
2)장소 : 서울불교문화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

● **온라인 입금 번호 : 예금주) 서울불교문화대학**

우리은행 : 1005-301-134537 농 협 : 1286-01-003632
신한은행 : 100-022-830440 국민은행 : 093401-04-124574

서 울 불 교 문 화 대 학 (우)110-5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 02)763-3001, 0054 Fax. 02)763-5851, http://myogaksa.net



속리산 법주사 사하촌. 원내는 백영한 사내 1구 이장.



정이품송.



법주사 앞 관광지구 풍경.

불교문화콜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④ 속리산 법주사

절집 돌아가는 일 훤해

요식업 하는 집만 70여 가구, 옛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 살아
명절 때 쌀 주고 주민 초청해 축구시합도…절집 인심 풍성
세배하러 절가던 아이들, '군것질 보시' 동자 생각에 웃음 절로

법이 안주할 수 있는 탈속의 절. 법주사는 호서지방의 제일 승가람마로 신라 진흥왕 14년에 의신 조사가 창건했다. 1500년의 깊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보물을 지니고 있는 법주사. 목탑 팔상전과 화려하고 웅장한 청동미륵대불이 미륵 신앙을 정신적 지주로 삼게 했다. 사하촌 오리 숲길은 역사와 문화의 흔적 속으로 안내를 했다.

내속리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정이품송을 만난다, 조선시대 세조의 행차 때 가지를 들어 올려 길을 내주고 벼슬을 얻었다는 정이품송은 지금도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내속리면에 100㎝ 폭설이 왔을 때 한 쪽 가지가 부러졌다. 팔을 잃은 나무를 보며 철저하지 못한 문화재 관리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힘들다 내색 한마디 하지 않은 나무인데 말이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소백산맥 줄기를 따라 거대한 산 무리에 발길을 들임으로 속세와는 멀어진다 해서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크고 높은 봉우리들이 서로 어깨를 내어주며 만들어내는 겨울 산 풍경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속리산은 맑은 공기와 물이 자랑이라지만 덤으로 인심을 가득 담아내는 산채 정식과 막걸리도 유명하다. 산사로 오르는 초입에 즐비한 간판들이 식욕을 당겼다. 암산인 속리산과 가장 어울리는 딸 부잣집으로 들어갔다. 연꽃처럼 훤하게 생긴 김봉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다. 한때 법주사에서 월탄 스님을 모시며 근무 했다는 그가 어린 날의 동화를 들려주었다.

"옛날에는 말티고개를 오를 때 버스가 힘이 없으면 사람이 뒤에서 밀고 올랐습니다. 원래 사하촌 자연 마을은 사내골, 청주나들이, 새터말, 민판골이었지요. 관광지 환경 개선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식업 가구만 해도 70가구 인데 옛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못 먹고 살던 시절, 절 밑에 가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하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백영한 사내1구 이장님 댁도 경남 거창에 살다 해인사에 일 다니던 할아버지를 따라 이곳으로 이주해 둥지를 틀었다. 절집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공사나 산판일로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법주사는 사하촌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도지를 받아서 살림을 했다. 주로 콩과 쌀로 계산했는데, 추수철이면 법주사 종무소직원들이 스님과 함께 나와 답품을 했다. 답품은 벼 낱알 수를 세어 어림잡아 셈하는 것을 말한다. 답품을 하지 않을 때는 볏단으로 주기도 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찰과 사하촌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지는 않았나보다.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집 아랫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스님을 양아버지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동네 소임을 보는 사람에게는 도지 없이 땅을 내 주었지요. 그런데 토지개혁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산은 절이 갖게 했고 땅은 소작인들에게 분할해 주었어요. 돈이 없는 소작인들은 매년 추수해서 땅값을 갚았습니다. 당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집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지요. 동네일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절집과 잘 지내왔는데, 땅을 절집에 돌려주자고 주동을 해 포기 각서를 모두 썼지요. 땅을 모두 절집에 돌려주었지만, 소임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땅은 마을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땅 주인을 찾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동네 땅이라 주장하고, 절집에서 절 땅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싸움이 벌어졌지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사하촌 사람들은 절집 돌아가는 일에도 훤하다.

"법주사에 청동 미륵불을 불사할 때 월탄 스님과 각현 스님이 고생을 하셨지요. 금 80Kg을 화주해서 청동 미륵불에 금 옷을 입힌 것은 큰 업적이었지요."

절집 인심은 가뭄에도 솟아나는 샘물인가 보다. 명절 때마다 사하촌에 쌀을 내놓기도 하고 속리축전행사 때면 산신제 제물을 모두 준비한다. 법주사 단오절 행사에서는 손님들과 사하촌 사람들을 초청해 승가대학팀과, 한데 어울려 축구시합을 벌이기도 한다. 승부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스님들은 승부근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70년대 사하촌 악동(惡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설 명절이면 차례가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세배 하러 절집으로 향했어요. 방마다 돌아다니며 세배를 하면 스님들이 1원 짜리 지폐를 주셨는데 그 재미로 설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절집에 사는 동자승들이 학교에서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불전함을 털어가지고 오는지 학교 올 때면 항상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으니까요. 누룽지도 가지고 오고…." 친구들에게 군것질 보시를 하던 동자승을 떠올리는 백 이장님 얼굴이 하회탈처럼 변했다.

사하촌 사람들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절집과 협의 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기도 한다. 요즘 사내리의 현안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정부가 힘을 많이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놀이 공간이 바로 관광자원 이라던 말이 귓속에 박혀 나를 따라왔다.

법주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신라의 걸작 **쌍사자 석등** (국보 5호)

입 벌린 사자 부처님 말씀
입 다문 사자 부처님 진리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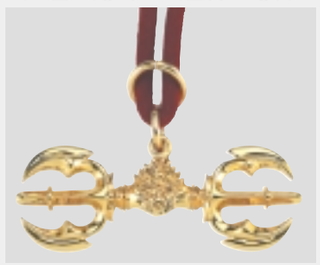
신라 시대 석등은 대개 하대 중대 상대석으로 구분하고 있다. 쌍사자 석등 하대석 연꽃은 번영을 담고 있다. 중대석에는 사자 두 마리가 있다. 입을 벌린 사자는 염불의 사자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입을 다문 사자는 참선의 사자 부처님의 진리를 뜻한다. 입을 벌린 사자와 다문 사자를 아울러 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우는 것처럼 입을 벌린 사자는 출생의 의미이고, 입을 다문 사자는 죽음을 의미한다. 상대석에 연꽃이 피어있다. 그 위에는 오직 부처님 밖에 올 수가 없다. 부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예전에는 24시간 관솔불을 땠다. 그래서 석등 창 밖에 검은 그을음이 앉아 있다. 그 불빛은 부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팔각 옥계석에 세 개의 테를 두르고 다시 팔각을 떴다. 천장에 사각 틀은 우물 정자이다. 우물 정자는 각에 화재 예방의 뜻을 두고 있다. 핸드폰에 우물 정자가 들어가는 것도 화재 예방의 의미가 담겨있다.

자연으로 상 차리는 '딸 부잣집'

사내리 관광지구에 있는 딸 부잣집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에서 나는 나물과 약초를 채취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밥상 위에 올린다. 겨울 장사를 위해 옥화대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자연산 다슬기를 채취하고, 추석 일주일 전부터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을 채취해 냉동시켜 놓는다. 자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려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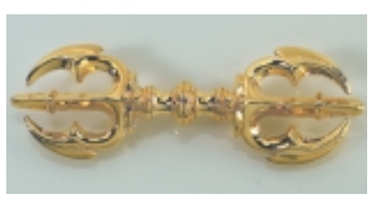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일주문



불교출판협회장 연임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은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대 회장에 연임됐다.



봉국사 주지 취임법회

성남 봉국사 주지 효림 스님은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봉국사 심검당에서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한다.(031)755-0329



보건학 박사학위 취득

대구 송학사 주지 정환 스님은 2월 21일 대구한의대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봉은사 신도회장

대우건설 김건호(법명 우암) 고문이 2월 25일 서울 봉은사 13대 신도회장에 취임했다. 김 고문은 건설교통부 차관과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새봄맞이 특강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은 3월 7~9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현대인의 불교'를 주제로 2007 새봄맞이 불교 특강을 개최한다. (02)762-5624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부총장 겸 대학원장= 한진수 △정각원장 겸 기숙사관장= 종호 스님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 법산 스님 △문과대학장 = 정성호 △이과대학장= 김혜중 △법과대학장= 이상영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양영진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이병철 △생명과학대학장 겸 실험농장장= 이명훈 △공과대학장 겸 정보산업대학장= 조성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김혜숙 △예술대학장 겸 문화예술대학원장= 김방옥 △영상대학원장= 차승재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강성윤 △교양교육원장= 박명관 △국제교육원장 겸 국제화추진단장= 김일중 △사회교육원장= 정창근 △전략기획본부장= 이형우 △학사지원본부장= 이상일 △사업개발본부장 곽노성 △운영지원본부장= 백경선 △경영관리실장= 조의연 △입학처장= 고유환 △산학협력단장= 박형무 △정보관리실장= 김양우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취업지원센터장= 조훈영 △중앙도서관장= 석원경 △캠퍼스기획단장= 김홍일

〈경주캠퍼스〉 △부총장= 손동진 △정각원장= 법혜 스님 △불교문화대학장 겸 불교문화대학원장= 이만 △법정복지대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장= 오영석 △인문과학대학장= 이한구 △과학기술대학장= 이동웅 △경영관광대학장= 김오우 △사범교육대학장= 백경임 △한의과대학장= 김장현 △의과대학장= 이규춘 △전략기획본부장= 이계영 △학사지원본부장= 이시영 △운영지원본부장= 신익종 △입학처장= 심규박 △산학협력단장= 이동웅 △정보관리실장= 오승현 △학생경력개발원장= 박상범 △도서관장= 이정일 △국제교류교육원장= 김영철 △사회문화교육원장= 김세곤

유건집 교수 '한국 차문화사' 펴내



"역사가 없는 민족이 없듯, 역사 없는 학문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어진 차문화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워 이렇게 직접 책으로 엮게 됐습니다."

본지에 '연표로 보는 차문화사'를 연재했던 유건집 교수(원광디지털대 석좌교수 · 사진)가 〈한국차문화사〉(이른아침)를 발간했다.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차 문화 역사를 1000여 페이지에 걸쳐 풀어 놓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구성과 집필에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간 공개되지 않아던 자료들도 실었고, 가야 차 문화 등 등한시 되던 차 역사의 단면도 찾아냈다고 자부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후학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 교수는 책을 집필하며 차 역사에 관한 오류가 비판 없이 재인용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흔히 조선시대에는 차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고려시대 불가(佛家)의 차 문화가 조선시대 유가(儒家), 즉 선비들의 문화로 옮겨왔을 뿐 그 명맥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책에 실린 조선의 차인만도 15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남긴 수백여 편의 다시(茶詩)를 연구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차의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라고 말하는 유 교수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곧 차의 정신을 바로 아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전보삼 교수 대불련 총동문회장에 선출



"대불련동문회의 숙원인 자비나눔공동체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24일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된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신구대 교수 · 사진).

2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된 전 관장은 "동문회라는 친목성격의 모임에 그치지 않고 봉사단 구성이나 연대활동을 통한 대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임기 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전 관장은 또 "대불련 동문회가 한국불교 지성인 모임인 만큼 적절한 목소리도 내는 등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분야별 모임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전 관장은 "대학 신입생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확대, 대불련과 동문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인문학 활성화 최선 다할 터"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 학진 인문학단장에 임명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의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사업을 심사 · 선정하는 인문학단장에 3월 1일자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 우리는선우 이사장 · 사진)가 임명됐다.

그간 인문학단장으로 활동하던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의 뒤를 잇게 된 성 교수는 "우연히도 불자 교수가 연이어 중임을 맡게 됐다"며 "1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집행하는 자리라 부담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문학단장은 2년 상근직으로, 학진의 인문학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심사 · 평가 · 선정 등을 맡게 되는 자리다. 학진은 지난해 2월 산하 사업단을 인문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공학 · 생명과학 등 6개 체제로 개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성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공명정대하게 심사해 지원금을 배분함으로써, 인문학 분야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동두천 공무원불자회 새회장에 조희성씨



동두천시청 공무원불자모임 삼보회(지도법사 용하)의 신임 회장에 조희성(사진) 사회복지과장이 선출됐다.

조희성 과장은 "법회 참여도를 높이고 회원 배가 운동을 펼치는 한편, 큰스님 초청 법회와 회원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삼보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전철 개통 등으로 늘어나는 동두천시민을 포교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고영배 기자

불교인재개발원 정책포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2월 27일 불교인재개발원 교육장에서 2007년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농업 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권영근 소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 발표자로 참여해 사찰과 농촌의 상생 관계를 모색했다.

동산불교대 졸업식 봉행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2월 25일 2007학년도 상반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불교학과 47명을 포함해 불교다도학과(4명), 불교장례문화학과(4명), 불교한문학과(3명), 대학원 법사과정(4명) 등 62명이 졸업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고려대불자교우회 회장단 취임법회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회장 유종곤)가 2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임 회장단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이채영 씨와이 로지스틱스 대표이사, 홍승기 불교방송 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앞으로 대학별 불자회가 창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에 박영순씨 임명



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에 박영순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2월 26일 임명됐다. 박영순 종책특별보좌관은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대성사 금강불교대 입학식 봉행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는 부설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 입학식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스님과 신도회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일 오후7시에 봉행했다. 이날 금강불교대학에는 불교학과 보통과정 100명과 고급반 90명이 입학했다.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화제의 신간

21세기 新 개념의 한방처방학!!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Ⅰ,Ⅱ권】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한의학과 음양오행학 사주명리학을 접목시켜 신규의 의학이론을 창시하였다 이 신규의 의학이론에서는 사주음양오행에 기초를 두고 인체 장부의 허실을 알고 개개인의 체질을 판단하고 처방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뿐만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여부를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徐 昇 煥 지음 / 4×6배판/ 양장본 Ⅰ권 880쪽 , Ⅱ권 680쪽/ 각 권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 4×6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무엇이 제일 오래 썩지 않죠?”

사찰생태연구소, 어린이와 함께 망월사 겨울숲 관찰







‘어린이 생태문화교실’ 현장

흔적 찾기 놀이하며 환경의 소중함 이해

‘생활선’ 주제로 법문 듣고 다도체험도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니 이해가 빨라요”

“도봉산에는 박새, 까치, 오색딱따구리, 오목눈이, 쇠박새, 직박구리, 찌르레기 등 20여종의 새들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서 까치는 주로 높은 나무에 나뭇가지를 모아 집을 짓고 살지요. 다른 새들과 달리 까치는 한 자리에 둥지를 틀고 계속 집을 리모델링 한답니다. 저기 나뭇가지를 물고 가는 까치 보이죠? 바로 집을 리모델링 하는 중이랍니다.”

2월 27일 오전 10시. 사찰생태연구소(대표 김재일)가 주최한 ‘제 1회 어린이 생태문화교실-도봉산 망월사의 겨울숲과 사찰문화체험’ 참가자 20여명은 망월사역 입구에서 망월사까지 약 4㎞에 이르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이번 행사는 사찰생태연구소가 사찰 주변에 많이 조성돼 있는 사찰숲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동시에 사찰문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 숲 해설가 정미경씨와 환경교육가 박희준씨 등의 안내로 학부모와 어린이(초등학생) 등 일행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산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참가자 대다수인 어린이들은 정미경씨가, 학부모 4명은 박희준씨가 각각 안내를 맡았다.

“붉나무는 가을에 타듯이 붉게 단풍이 든다고 해서, 물푸레나무는 나무를 찧어서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나무 이름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숲 해설가 정미경씨가 어린이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목이 마른데 왜 이 산에는 물이 없지요?” “새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저귀죠?” “저 나무는 아카시아가 맞나요? 아까시가 맞나요?” 등등. 다 듣고 보니 얼른 답이 쉽지 않은 물음들이다. 숲 해설가 답게 거침없이 정씨가 답했다. “도봉산에는 물이 귀하답니다. 저 멀리 산 정상 군데군데에 하얀 바위들이 보이지요. 저게 바로 화강암인데 이런 지형에는 마사토가 많아 물이 잘 빠져 물이 아주 귀하답니다.” 정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새들은 봄이 오기 전 이 시기가 되면 각자 제짝을 찾기 위해 지저귀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지저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의 정답은 아까시가 맞아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카시아는 주로 숲의 입구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요.”

망월사를 1㎞ 남겨둔 산 중턱, 가파른 산길을 올라온 어린이들이 지쳐 짜증 섞인 볼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다. 이를 눈치 챈 정씨는 베테랑 안내자답게 즉석에서 게임을 제안했다. “자, 지금부터 흔적 찾기 놀이를 하겠습니다. 사람과 새, 나무의 흔적들을 빨리 보자기에 담아 오세요.” 정씨의 작전(?)은 성공이었다. 좀 전까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아이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5분이 지나자 사람의 흔적인 껌종이, 새의 흔적인 깃털, 나무의 흔적인 나뭇가지 등이 각자의 보자기 위에 수북히 쌓여 모아졌다. 정씨는 말문을 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안 썩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껌종이요” “예 맞아요. 사람의 흔적이 제일 오래 썩지 않는답니다. 특히 1회용 컵과 접시는 50년도 넘게 안썩는 다고 하니 1회용 물품은 가능하면 쓰지 맙시다. 알았죠?” “예”

우뚝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들 속에 안겨 있는 듯 자리 잡은 망월사에 도착한 일행은 절의 풍광에 매료되기도 잠시, 법당에서 망월사 주지 구전 스님에게 ‘생활선’을 주제로 법문을 들었다. 구전 스님이 “우리 어린이들은 뭐 좋아해요?”라고 묻자 “그림 그리는 거요” “노래 부르는 거요” 등등 거침없는 어린이들의 대답이 이어졌다.

구전 스님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요?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선이에요. 지루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것, 바로 이런 집중된 힘에 의해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고 설명하자 어린이 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문이 끝나자 구전 스님의 안내로 주지 실에서 다도체험이 있었다. 다관에 차를 우려내는 스님의 모습이 신기한지 어린이 들은 스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아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다도시범을 관람했다. 모두들 스님이 건네준 차가 맛있다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망월사 경내를 둘러보는 것으로 첫 생태문화체험을 끝낸 참가자들은 하산길에 생태 기행의 소감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망월사는 차가 올라가지 못해 음식물을 스님들이 직접 지게로 옮기는 것이 안타까웠어요(박소영 · 의정부 중앙초등 6년)” “올라가는 데는 힘들었지만 시멘트 도로를 깔아 놓지 않아 오염이 덜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박주하 · 의정부 중앙초등 6년)” “산에 이렇게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줄 몰랐어요(최재웅 · 중계 중앙초등 5년)” “스님이 차(茶) 만드는게 너무 신기해요(송의진 · 7살) 등등.

딸과 함께 참가해 안내까지 맡은 박희준씨는 “직접 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사찰 주변의 생태를 설명하니 이해가 빨라 요”며 “환경 교육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강의실에서 하기보다는 현장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사찰생태연구소는 3월 24일에는 북한산성과 중흥사지에서, 4월 28일에는 소요산과 자재암에서, 5월 26일에는 종묘와 창경궁에서 어린이 생태문화교실을 진행한다.



망월사 주변 숲의 생태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어린이 참가자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망월사 주지 구전 스님이 주지실에서 참가자들에게 다도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 왼쪽).
망월사 대웅전에서 예불하고 있는 송의진(7살) · 김민주(7살) 어린이.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산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숙성, 자정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금속을 배출합니다.

장부의 혈맥에 온열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며, 겨드랑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 · 후 갑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맥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심 · 폐의 혈을 안정적으로 유지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혈(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을 원활히 순환시켜 겨드랑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치유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로 동시에 혈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겨드랑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갑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혈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판매원 :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9> 헛된 이름과 잇속을 탐하는 어리석음

몇 년 전 어떤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덕이 높은 스님들과 앞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빛낼 젊은 스님들이 많이 모여 축복된 그 날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진을 찍어 자취를 남긴다는 일이 어쩐지 낯설고 멋쩍었다. 공부가 부족한 나한테는 정말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비켜나려는데 어떤 스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스님, 어서 빨리 오세요. 지금 세상은 자기 피알 시대예요. 점잖게 뒤로 빠진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가귀감> 59장에서 말한다.

貪世浮名 枉功勞形 營求世利 業火加薪.

세상의 헛된 이름을 탐하는 것은 공력(功力)을 잘못 들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잇속을 찾아다니는 것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중생의 업[業火]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헛된 이름'으로 번역한 '부명(浮名)'은 실제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려서 말해지는 허황된 명성을 말한다. 세속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고 그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이름들은 허공의 뜬구름 같이 곧 흩어질 헛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나의 몸이 없어진 뒤 헛된 이름만 이 세상에 남아 있은들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헛된 이름을 탐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시(詩)로 말한다.

하늘 멀리 기러기 날아갔는데 / 모래 위 발자취만 남아있구나
저승으로 사람들 가고 없는데 / 쓸모없는 이름만 집에 남도다.
[鴻飛天末迹留沙 人去黃泉名在家]

이 세상 모든 것은 세월 속에서 늘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할 것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인연이 모이면 생겨났다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므로 영원불멸할 실체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조차 덧없는 세월 속에서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과정을 거쳐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든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의 인연이 흩어지면 이 세상의 모습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인데 그 위에 떠도는 헛된 이름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이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큰 바위에다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열심히 글자를 새기고 있는 모습을 길을 지다가다 보게 된 한 스님이 시(詩)를 읊조렸다.

돌을 쪼아 제 이름을 깊이 새기니 / 어리석은 그 모습이 가소롭구나
이 세상도 곧 사라질 거품 같은 것 / 그 이름이 얼마동안 보존될소냐.
[鐫石題名字 山僧笑不休 天地一泡沫 能得幾時留]

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 후대에 보존하려는 이런 헛된 노력이 바로 '왕공노형(枉功勞形)'이다. '왕공(枉功)'은 공력(功力)을 잘못 들이는 것이다. '노형(勞形)'은 공력을 헛되이 잘못 쓰게 됨으로써 공부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이 몸과 마음만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헛된 이름을 탐하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중생의 무거운 업만 가중시킨다. 이것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공력을 잘못 들여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얼음조각을 다듬고 조각하여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쓸데없는데 자신의 기교와 솜씨를 다하는 것이다**[枉功勞形者 鑿氷彫刻 不用之巧也]**"라고 말하였다.

중생의 업에는 욕망이 깔려있고 욕망 부리면 부릴수록 커져 업화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영구세리(營求世利)'는 '세상의 잇속[世利]'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인연을 맺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營求]이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모두 떨치고 세상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할 수행자들이 재물을 모아 부를 축적하고 명품이나 사 모으며 비단옷을 입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마음 닦는 사람들이 세상일에 욕심을 내는 것은 눈 푸른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이다**[道人貪 是行者羞恥 出家富 是君子所笑]**"라고 말하였다.

출가자의 본분을 잊고 세상의 잇속을 찾아다니며 헛되이 세월을 보낸 수행자들이 맞이하는 결말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시(詩)로써 "온갖 꽃을 찾아다녀 애써 꿀을 모으지만 / 그 꿀맛을 맛볼 사람 마지막 그 누구일까?[營求世利者 有人詩云 採得百花成蜜後 不知辛苦爲誰甜]"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 이성(異性)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업이다. 이 업의 바탕에는 중생의 욕망이 들어 있다. 이 욕망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으므로 '업화(業火)'라고 한다. 세상의 잇속을 찾아다니는 것은 욕망의 불길이니, 욕망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욕망의 불길은 커지기만 하여 중생의 업화(業火)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잇속을 찾아다니는 것을 '업화가신(業火加薪)'이라고 한 것이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중생의 업[業火]'에 '기름을 끼얹어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킨다[加薪]'고 말하는 것이다.

중생의 업은 좋은 물건, 아름다운 소리, 향기로운 냄새, 맛깔스러운 맛, 상큼한 느낌, 자신의 판단 이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여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섯 가지 경계 곧 육경(六境)인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을 줄여 색향(色香)이라 한다. 이것들이 중생이 살아가는 삶을 추하게 거칠고[추(麤)] 나쁘게[폐(弊)] 만들어가므로 추폐색향(麤弊色香)이라고 한 것이다. 서산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좋은 물건과 향기로운 것들은 사실 불같은 욕망에 불을 활활 지피는 장작에 지나지 않으니 이를 탐하는 것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중생의 업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業火加薪者 麤弊色香 致火之具也]**"라고 말하였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아수라(阿修羅)

3월 초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업(業)'을 주제로 한 넌버벌 퍼포먼스 '카르마'를 선보였다. '카르마'는 자연의 흐름을 관장하는 5명의 남신과 6명의 여신이 탐욕의 신 '아수라'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탐욕의 신 아수라를 둘러싼 투쟁과 응징, 부활의 드라마를 통해 인도 신화에서 뽑아내온 주제는 인간존재의 보편적인 문제까지 말한다.

극중 탐욕의 신 '아수라'는 인도신화에서 선한 신들의 적이자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신으로 등장한다.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의 하나이기도 하다. 천룡팔부는 불교에서 말하는 절을 수호하는 신중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람은 아닌 귀신을 말한다. 천(天), 용(龍), 야차(夜叉), 건달바(乾達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婁羅), 긴나라(緊那羅), 마호라가(摩呼羅迦)이다. 아수라를 비롯한 이들 팔부중은 원래 인도 고대신화의 신으로 불교에 흡수된 신들이다.

불교에서 아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육도(六道)의 하나에 아수라도(阿修羅道)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바로 아수라도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불상 조각에서 나타나는 아수라는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삼면육비(三面六臂)의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다. 세 쌍의 손 가운데 하나는 합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둘은 각각 수정(水晶)과 도장(刀杖)을 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



왜 상담심리학과 불교인가?

불교란 종교를 알기 쉽게 비유한다면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바닷물을 표주박으로 떠 맛을 보면서 이 맛은 어떻고 저 맛은 어떻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그 바닷물 한 바가지를 담아 이 물은 한강에서 왔고 저 물은 미시시피 강에서 온 거라고 구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상담심리학' 그리고 '불교'를 함께 놓고 보니 불교란 망망대해 앞에 표주박을 들고 서 있는 느낌이 든다. 태평양 한 가운데서 손바닥에 물을 담고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무모하게 추량하는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생긴다. 그러나 상담심리학이 바다 같이 무량한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류,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져본다.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신 길, 부처님이 하신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비록 부처님의 교화 과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작업을 현대 상담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가 상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내담자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苦聖諦) 그러한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며(集聖諦),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음을 알며(滅聖諦),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함께 닦아간다(道聖諦).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대의왕이라고 일컬으셨듯이 부처님이 설파하신 사성제는 의학 모델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상담심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담심리학과 불교는 형태와 내용과 실현 방식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차이점도 많다. 현대 상담심리학에서 주요 상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담자와 정통 불교의 교화 대상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상담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나며, 상담 내용 역시 많이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교화 과정과 현대 상담가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상담을 하는 주체인 상담자와 불교의 교조인 부처님의 인격적 성숙, 역량, 그리고 전문성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사성제는 오늘날 상담심리학과 일맥상통
상담과 교화라는 면에서는 많은 차이 있어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여러 각도로 조망하면서, 상담심리학을 통해 불교에 새로이 접근하고, 또한 불교의 무한한 지혜와 무수한 방편을 현대 상담심리학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약력 :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학 전공.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1990년 장편추리소설 <저린 손끝>으로 등단. 장편소설 <저린 손끝> <거울 없는 방> <트라이앵글>, 수필집 <요설록>, 학술서적 <붓다의 상담> 등.



그림 : 문병성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서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 련 사 성진 합장 031)673-1087
남 · 여 행자승 모집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선지식을 찾아서

묵산



묵산 스님 (보림사 회주)

"살생은 다음생의 원수 맺는 일"

묵산 스님은 1940년 제주도 중문 원만암에서 출가해 1943년 황룡사에서 금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비구계는 만암 스님으로부터 수지했다.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과 효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으며, 오대산 백양사 수덕사 칠불암 등 전국 선방을 떠돌면서 수행 정진했다. 1965년 삼봉사에서 백봉 거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스승으로 받들었다. 19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고 1996년부터 매주 토요일 재가수행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함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 그런지 보림사 계단에 내려앉은 햇살마저 해끔하기만 하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참선도량'이라는 팻말과 함께 '참선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자기 인생이 깨달아진다'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예까지 오느라 느슨해진 마음이 돌연 긴장 모드로 바뀐다.

묵산 스님은 한국의 유마거사라 일컫는 백봉 김기추 거사를 선지식으로 받들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백봉 거사의 사진과 그가 쓴 액자 '광풍(光風)'이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재가 수행자들이 모여 백봉 거사가 주창한 '허공선'을 참구하는데, 묵산 스님은 십 년 넘게 이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이제까지 깨달았다는 몇몇 고승들을 만났지만 백봉만한 사람이 없었으며, 백봉을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말한다.

세속의 거사를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는 스님의 걸림 없는 자세가 바로 경계 짓지 않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 싶다.

"요즈음 조류독감으로 닭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는데 그 인과를 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닭들을 집어넣고 키우면 병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학대해서는 안돼요.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소나 닭, 장어, 미꾸라지 등 목숨 있는 것들을 막 먹어대는데 그것은 다음 생에 원수를 맺는 것이여. 불자라면 불살생계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탈바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부처님이 인과법문을 많이 설하였는데, 인과를 부정하면 안되지요. 인과법문은 과학적입니다."

내일의 삶이 궁금하다면 오늘의 나를 돌이켜 보라고 하지 않는가. 내가 지은 만큼 받는다는 인과법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어느 한 순간도 그릇되게 살수는 없을 것이다.

"몸이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부리기 때문에 절대성인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전부 물질문명에 현혹되어 상대적인 것에 이끌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유감스러워요."

현대사회에서는 물질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요, 또 정신만으로도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과 정신을 잘 조화시켜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산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산이 내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해와 달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해와 달이 내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어떠한 대소경계도 내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자리는 말쑥하고 맑다는 것이지요. 물질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잘 굴림으로서 상대성인 물질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무병해야 정신이 밝아지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름답고 넓고 겸허해서 남을 존경하고 하심할 줄 알아야 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해. 이런 가운데서 덕이 생기는 것이지. 하지만 정신과 물질 또한 둘이 아니어서 물질이 정신이요 정신이 곧 물질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이 무한대의 시공간을 거리낌 없이 오고가니 정신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 또한 불성을 담는 그릇이니 소홀히 대해서도 안될 일이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다. 백봉 거사는 "나의 색신은 부처의 위의를 드러내는 대행기관이요,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요,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라고 했다.

스님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요즈음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선근을 지었는지 돌아보게 된단다.

"중노릇은 시주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생에 소 돼지로 태어나는 무서운 인과를 받게 되어요. 머리 깎고 가사 장삼 입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것만 해도 굉장한 지위인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더 가지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은 허욕이여. 부처님은 49년 동안 걸식하셨는데, 그것은 하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며, 중생들과 인연 맺어 불법을 전하려고 한 것이지. 불교는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것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언제 몸뚱어리를 버릴지 모르고 꿈결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금강경>에서 일체유위법은 모두 몽환이라고 하는데도 승속(僧俗)이 철저히 믿지 않고 몸에 온갖 사치를 부려요.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알아야 하는데…."

요즈음이야 탁발이 없어졌지만 스님은 예전에는 거의 탁발해서 살았다고 한다. 부산 남천동에서 서울까지 보름동안 걸어서 왔는가 하면, 대구에서 탁발하고 대전에서 탁발해서 살았으며 지금 보림사 도량도 스님이 탁발해서 이룬 것이라 한다. 서울에서도 골목골목 안 들어가 본 곳이 없으며, 90일 동안 정릉에서 목탁치면서 탑골공원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 주곤 했다.

"고행은 깨달음의 씨앗인데, 고행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신심이 강해지고 업장이 녹고 혜안이 밝아집니다. 탁발을 하다보면 내가 허공을 삼키며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허공성을 느끼면 1700공안이 무너져 내리지."

허공 속에 내가 있고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넣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것과 묵산 스님이 허공을 삼켰다는 그 한 소식은 짧은 소견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사경이나 염불도 그 공덕은 있겠지만, 참선하는 것에 비할 바가 못되며, 참선한다 하더라도 견성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말씀에 허공을 삼키면 어떤 맛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스님은 선지식 만나 공부하는 것도 전생에 공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거든 <초발심자경문> <선문촬요> <육조단경> <금강경> <선가귀감>등을 선지식으로 삼아서 공부하라고 일러주신다. 스님이 건네주신 백봉 거사의 <금강경 강송>을 머리에 이고 나왔다.

글 · 사진= 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색상 : 회색, 흑색
• 규격 : 215-290mm (키높이 특수제작)

총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비'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5)

묻되,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답하되, 사자는 사람 물고 개는 흙덩이를…

경허 스님이 충남 천장암에 머물 무렵, 계룡산에 태평상인(太平上人)이란 지혜와 덕을 갖춘 스님이 있었다. 경허 스님의 명성을 들은 태평상인은 서산 부석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태평상인이 경허 스님이 있는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달마가 서쪽(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허 스님은 대뜸 주장자를 들어 후려쳤다.

태평상인이 다시 말했다.

"때리려면 때려도 좋소이다. 그러나 조사서래의를 맞힌 것은 아니지 않소이까?"

이 말을 들은 경허 스님이 곧 되짚어 말했다.

"무엇이 조사서래의인가?"

이번에는 태평상인이 주장자로 경허 스님을 후려갈겼다.

얻어맞은 경허 스님이 말했다.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거든(獅子咬人 漢盧逐塊)."

이 말을 듣고 태평상인이 공손히 말했다.

"법은(法恩)이 망극합니다."

경허 스님은 웃으면서 법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사(달마)가 서역에서 온 뜻'이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즉 불법의 대의를 말한다. 불조(佛祖)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다.

<오등회원(五燈會元)>에는 "모름지기 사자가 사람을 물듯이 하되, 한(漢)나라 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 같이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데 정신을 쏟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주혜해 선사는 경전(이론)에만 집착하는 수행자를 한로축괴(漢盧逐塊)라 경책하고, "경 · 율 · 논은 자성의 쓰임일 뿐이다. 그것을 읽으며 외는 사람이 바로 자성 그 자체다(經律論是自性用 讀誦者是性法)"고 일깨우고 있다.

부처(自性)는 경을 읽거나 외는 그대 자신이다. 경전과 이론은 자성을 깨닫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언어나 문자의 방편에만 매달리는 수행자는 흙덩이를 쫓는 개일 뿐이다. 매순간 불법을 쓰고 누리면서도, '불법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은 소를 타고 소를 찾거나 세종로에서 서울 찾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불법의 대의를 묻는 태평상인의 질문에, 경허 스님은 말과 생각을 떠나 문득 때리는 행위로 자성의 전체작용(全體作用)을 드러냈다. 하지만 태평상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사서래의를 맞히지 못했다'는 잠꼬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에 경허 스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태평상인에게 하니, 그 역시 똑같은 방(奉)으로 응수한다. 태평상인이 짐짓 알면서도 경허 스님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불법이 이것이니 저것이니 분별하며 흙덩이를 쫓는 개가 되지 말라'는 경허 스님의 경책에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깨달은 사람의 언행은 그 어떤 것도 자성의 작용을 온전히 드러내는 반면, 말만 익힌 사람은 어떤 언행을 나타내도 확신이 부족한 모방에 불과한 것이다.

경전 · 이론은 깨달음의 방편
방편만 좇으면 '法' 놓치게 돼
매순간 佛法 쓰는 건 자기자신

임제 스님은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을 것이다", "문자에 속지 않으면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 조사(祖師)다"라고 했다. 밖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진다. 똥 덩어리 찾아 헤매는 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어 당당한 사자(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대장부, 여장부의 삶이 아닐까.

김성우 객원기자

앉으나 서나 禪 아닌 시간 있는가?

서울 법천사 운문선원 철야정진현장

장군죽비 '경책' 받으며 '일행삼매' 탐구

'정중선 · 동중선' 함께 수행…매월 1·3주 토요일



운문선원 재가수행자들에게 선원장 일수 스님의 장군죽비는 번뇌망상과 혼침을 타파하는 묘약이다.

2월 24일 토요일 저녁, 서울 성북동 언덕에 자리잡은 법천사 운문선원. 아담한 정원을 가로질러 불전에 참배하고 선원장 일수(一守) 스님을 뵌 후, 곧바로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8시부터 시작된 정진은 좌선에 앞서 경직된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요가로부터 시작됐다. 입승인 혜오 스님과 함께 20여 불자들이 온 몸 구석구석을 차근차근 풀어준다.

"딱! 딱! 딱!"

입정을 하자마자, 선원장 스님의 장군죽비가 살벌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춘다. 필자 역시 양 어깨에 세 방씩, 여섯 방의 경책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정진에 들어갔다. 양 어깨에 짊어졌던 천 근의 짐이 부서지면서 홀가분해진 느낌이었다. 경책은 자정을 넘기면서 졸음이 쏟아질만 하면 계속 이어졌다. 2년만에 철야정진에 나서면서 체력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의외로 졸음이나 망상은 적었다. 다리와 허리의 통증 역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철야정진이 수월한 것은 장군죽비를 세 번, 모두 18방이나 맞은 효과 때문이라 여겨졌다. 혼침에 떨어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맞는 장군죽비는 그야말로 천둥과 번개와 같은 위력을 지닌 호법신장이나 다름없었다.

이튿날 오전 2시 30분부터 선원장 스님의 소참법문과 故 서옹 스님의 <벽암록>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무사히 철야정진을 회향했다. 당시 84세의 고령에도 <벽암록>을 제창하는 서옹 스님의 벽력같은 목소리가 가슴을 울린다. 새벽 예불을 끝으로 법회가 끝났것만, 대부분의 불자들이 아침까지 정진을 이어간다. 어느 절에서도 보기드문 용맹정진의 모습이다.

법천사는 고불총림 백양사 운문선원장을 역임한 일수 스님이 2005년 11월 시민선원을 연지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 1백여 재가자들이 정진하는 수행도량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법랍 36년 가운데 20년이 넘게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 온 선원장 스님이 재가자들을 위해 '철야 참선 정진회'를 결성, 매월 첫째 ·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직접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운문선원이 불과 1년만에 이처럼 재가자 용맹정진 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은 정중선(靜中禪)인 좌선과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동중선(動中禪)을 함께 가르치기 때문이다. 본래 조사선은 노동(운력)과 법문듣기, 좌선이 하나로 이어지는 마음공부여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動靜)이 선(禪) 아닌 때가 없다. 하루 24시간이 그대로 수행이 되어 일행삼매(一行三昧)에 이르는 동정일여의 공부에 대해 일수 스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원래 간화선은 정중, 동중 공부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자나 깨나 일여해야 한다(寤寐一如)'는 것이죠. 일속에서 화두 드는 습관을 들이면 운전할 때도 화두가 또렷하지만, 운전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욱 무르익어 돌과 나무처럼 무심해지면, 거기서 다시 끊어짐 없이 지어가면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됩니다. 이것은 천만 갈래의 마음을 화두에 다 모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타성일편이 되어야만 무의식에 가까워져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성성적적(惺惺寂寂: 또렷하고 고요함)한 공부가 이어집니다. 이 무의식에서도 더 열심히 정진해 이를 넘어서면 견성(見性)이라고 조사 스님들은 말씀합니다."

차도 오래 마셔봐야 차 맛을 알듯이, 화두 공부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며, 더욱 간절해진다. 화두 드는 힘이 생겨 탄력을 받게 되면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데, 이를 득력(得力)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때가 선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봉 스님은 득력해서 3 · 7일(21일)이면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동중 공부에서 힘을 얻으면, 정중 공부는 오히려 쉽게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좌선과 함께 동중선을 함께 배운 덕분에 운문선원 재가 수행자들은 수행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 10년 동안 '무자(無字)' 화두를 들고 있는 여래행(55 · 서울 둔촌동) 보살은 "오랫동안 스승을 찾다가 선원장스님을 뵙고부터 수시로 지도 · 점검을 통해 경책과 격려를 받으며 공부하다보니, 집과 선원을 오가며 환희심 나게 정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도들의 공부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일일이 점검해 주는 일수 스님의 지도법은 당대의 선지식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공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해인사의 성철, 혜암, 법전 스님과 불국사의 월산 스님, 통도사의 월하 스님, 봉암사의 서암 스님, 동화사의 진제 스님, 태안사의 청화 스님, 백양사의 서옹 스님 등 큰스님들로부터 독참(獨參)도 받고 법문도 많이 들어서 공부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운문선원은 매월 둘 · 넷째주 일요일 2시에 청년법회를 열어 참선과 함께 금강경(미황사 금강 스님 법문), 초발심자경문 강좌를 열고 있다. (02)745-6939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게시판

선법문과 철야정진
경북 봉화 축서사는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9시에 참선법회를 연다. 무여 스님의 선법문에 이어 선열당, 운수각, 심검당 등 3곳에서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하고 새벽예불로 회향한다. (054)672-7579

참선교육 73기 개강
수선회는 3월 13일~4월 10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4층에서 제 73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참선의 자세, 참선의 종류, 선종 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 참구법 등 교육. (02)732-5960

우 왐사락키따 스님 초청 집중수행
경기도 안성 황룡사는 4월 6일~4월 27일(3주간) 찬메 사야도(우 자나카 스님)의 캐나다 제자인 우 왐사락키따 스님을 초청,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031)674-3578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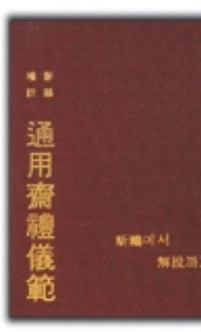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 이번 학기에도 '희망'을 가르치자

대학엔 형편 어려운 학생 의외로 많아
"살면서 겪을 어려움 더 큰데…훈련은 힘들수록 좋다"
마음에 입력하는대로 출력되는게 인생

학생들을 위한 기도

"부처님 법을 몰랐다면 지식 위주로 가르칠 생각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인연법을 알기에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3월이면 대학도 개강이다. 불자인 K씨는 새 학기 시작 전이면 늘 하는 일이 있다.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반면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하는 참선시간에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가진다. 새 학기에 담당하게 될 학생들, 아직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 이 학생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든 업장이 다 녹아 없어지길 발원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공부 잘 하게 해 주세요." 물론 학기 중에도 계속 될 기도이다.

K씨가 특히 간절한 마음을 내게 된 것은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았다. 아버지가 실직한 경우들이 꽤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하며 힘겹게 번 땀으로 장만하는 학비이다. 그 동안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 했지만 학비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족생계를 담당해야 하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었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학등록금이 올라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보낼까' 하고 생각하면 지각하거나 게으른 학생들을 보면 화가 난다. "교수님, 과 수석을 해도 취직이 어렵다던데요?" 하는 학생들. 졸업해도 낮은 취업률은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기 쉽다.

인생의 훈련과정

진짜 문제는 마음 자세이다.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나약해져 공부에 집중을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왔지 않은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진학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지 않도록 말해준다. 교육받는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책임감까지 느껴야 하는 일이다.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갖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청년시절은 그것을 해결해 갈 마음의 힘과 지혜를 기르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 부단한 노력을 연습하는 과정과 같다. "여러분들 닥친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인생은 몇 배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어려운 상대나 힘든 코스로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과 쉬운 상대와만 겨뤄보고 편한 코스만 택한 사람. 지금 겪는 일들이 하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필수적인 실전 경험을 쌓는 훈련으로 생각합시다."

대학에서 지식 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하고 지구촌 시대를 대비해 대승보살의 원력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마음에 힘을 더 키울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기도한다.

마음의 입력 바꾸기

K씨가 한 학기 내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중요성을 외우기 쉽게 컴퓨터에 익숙한 학생들에 맞게 만든 구호입니다. "마음의 입력이 인생의 출력을 결정한다. 마음의 입력을 바꾸면 인생의 출력이 바뀐다." 수없이 따라 독송(?)시켜서 학기말 쯤 되면 저절로 외워지게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마음의 입력을 바꾸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들이 삶과 학교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노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나무 석가모니불, 엎드려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용주사 가족 템플스테이
수원 용주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이 시대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효행 가족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3월 24일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효행사찰 용주사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031)239-9391

△ 신라문화원 남산 답사
신라문화원이 3월 10일 '신라인의 불상 안치법 연구'를 주제로 경주 남산 답사에 나선다. 미륵골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등을 둘러보며 신리불상의 안치법을 탐구한다. (054)741-1950

흥국사 직장인 위한 야간 불교대학 개설
고양 흥국사가 바쁜 직장인을 위해 야간 불교대학을 개설한다. 3월 8일 오후 8시 개강하는 야간 불교대학은 6월 28일까지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수강료는 4만원. 부처님 생애와 불교교리, 불자예절, 기도, 참선법 등 다양하게 불자로서의 기본기를 다지게 할 계획이다. (02)381-7970

대각사 선불교대학 2기 개강
서울 대각사가 3월부터 7월 20일까지 제2기 선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용성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되는 강좌다. <금강경>을 비롯해 <선요>, 불교교리, 참선 등을 강의한다. (02)765-0972

공불련 제14차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3월 24~25일 보은 법주사로 제14차 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와 더불어 제4차 임원단회의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공불련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9-1080

부처님 감사합니다

빈자일등, 참회의 등불 (하)

이종구 경남 마산시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아쉬움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희망이 교차된 들뜬 분위기 탓인지, 저는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고삐는 차츰 느슨해져갔고 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제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다니…. 술을 깨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가혹한 운명의 저주가 내린 것인지, 하루 아침에 살인자의 아내와 자식이 되어버린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신은 혼미해질 따름이었습니다. 아내와 부모 형제들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황급히 달려왔지만 너무나도 큰 충격 탓에 저는 가족과의 만남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치러야 했던 세 번의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일 년 남짓한 세월은 저에게는 잠 못 이루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이혼하고 두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진 채 고아와 다를 바 없어졌다는 사실은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림: 문병성

무기수된 후 '마음의 먼지' 깨달아
108배 · 독경하며 참회의 나날 보내

어머니는 면회를 오실 때마다 밖의 일은 걱정 말고 몸 건강히 지내라는 말씀과 함께 제 잘못을 진심으로 부처님 앞에 참회하라는 말씀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뵐 때마다 믿었던 아내가 저를 등지고 떠난 사실이 떠올라 제 운명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고 교도소로 이송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떡이나 빵 같은 공양물을 받아올 욕심에 집회를 다녔을 뿐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실로 다가설 계기를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현듯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소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모포건조날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깔끔한 편이어서 이부자리를 깨끗이 사용해 왔는데도 햇볕에 모포를 말렸다가 털어내자 뜻밖에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한줄기 섬광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 날 사회에 있을 때 나름대로 올바르고 열심히 살아왔다 해도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마음의 먼지까지는 털어 내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저를 오늘의 이 현실로 밀어 넣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작은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저는 교무과에 상담을 해 불교교실에서 본격적인 수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임 수용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들이 꺼려하는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하심을 실천했습니다.

찬불가 반주를 위한 전자오르간 연습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저였기에 사실상 독학으로 배워야 하는 오르간 반주가 쉽지는 않았지만 찬불가 보급을 통해 한 사람의 동료라도 더 부처님의 품안으로 다가서게 하리라는 일념으로 노력한 결과 연습을 시작한지 12년 만에 불교 법회와 찬불가 반주를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손에 희생된 가련한 영가를 위하여 매일 무상계, <아미타경> <금강경> 독송 및 백팔배 참회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의 먼지는 집착에 의해 쌓이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하는 마음에 대한 치료법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가르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인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부처님께 아무것도 공양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던 여인은 구걸을 통해 얻은 한 닢의 동전으로 적은 양의 기름을 사서 부처님을 위해 등불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등은 밤새 기름이 다 타서 새벽 무렵에는 다 꺼져버렸지만,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은 꺼질 줄을 모르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저의 의지는 그 옛날 가난한 인도의 여인이 한 닢의 동전과 바꾼 적은 양의 기름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밝혀든 참회의 등불은 날이 새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등불로 인해 보다 많은 동료들이 저와 함께 부처님의 품안에 귀의할 수 있게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끝)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국립중앙박물관 '루브르박물관전' 18일까지 열어

"직접 보니 감동이 두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 '프쉬케와 에로스'를 관람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남달랐다.

"어린이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전에 온 것을 환영해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전(이하 루브르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2월 27일에도 어린이 ·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명장들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국립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학부모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 중에는 아직 미술관 관람하기에는 좀 어린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아동들을 위한 루브르전 교육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40분, 2회씩 대강당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루브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 궁전을 지어 왕과 귀족들이 살았데요."

프랑스 '파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 중 하나가 '루브르박물관'. 왕들과 귀족들이 사용하던 궁전 '루브르'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영상으로 미술작품에 얽힌 역사도 배운다.

교과서 실린 명작 한눈에 아동들 위해 교육도 진행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변모된 사연은 듣기만 해도 인상적이다.

강당에서 와글와글 떠들던 어린이들의 눈과 귀가 강단 앞에 선 선생님에게로 향한다. 친근한 말투의 선생님이 이어 "신화가 뭘까요?"라며 문제를 낸다.

그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제우스랑 헤라', '전설', '단군신화' 등 여러 가지 대답들이 쏟아진다. 어디에선가는 "가수잖아요~!"라는 대답도 나와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화 중에 '그리스 · 로마 신화'가 있죠? 나중에 전시실에서 '프쉬케와 에로스'라는 작품을 보게 돼요. 사랑의 신 에로스와 아름다운 프쉬케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 때 에로스의 날개 뒤에 숨겨진 화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이야기를 아는 아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궁금해서, 신화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서 모두 힘차게 "네~"라며 대답한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통했다. 꼬맹이들은 특히 신이 났다. '프쉬케와 에로스(제라르 作)'의 무지갯빛 화살은 과연 설명 그대로 아이들의 눈 속에서 함께 빛났다.

문성원(서울 이촌동 · 36)씨도 아들 세영(6)이를 데리고 루브르 구경에 나섰다가 계속 끌려다니기 바빴다.

"애들이 따분해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아하네요.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아이에게 루브르박물관 미술품을 보여준 셈이에요."

'프쉬케와 에로스'만큼 아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 또 있었다. '헤어 도련님(레이놀즈 作)'이다.

"와, 여자 옷 입고 있는데 무슨 도련님이래!"

"너도 치마 입고 싶지?" "절대로, 싫어!"

미술관에서는 조용히 관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 곱슬머리에 드레스를 입고 해맑게 미소 짓는 '헤어도련님' 앞에서는 잠시 소란스러워도 웃어넘길 수 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번 전시는 매력적이다. 낭만적이고 고전적인 루브르전이 청소년 특유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들라크루아, 제리코 등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들과 컨스터블, 터너 등의 영국 화가들의 작품 앞에서는 서있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기 마련이다.


나폴레옹 초상 앞에서 주의깊게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지예와 성미(서울 동대문여중 3)는 작품들을 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작품 수가 많지 않다고 들어서 실망하면 어쩌나 했는데, 미술책에서나 봤던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니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이번 전시에서 미술관람 교육을 맡고 있는 남근아 선생님(GNC 미디어)은 아이들에게 '루브르 박물관전'을 더 의미 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되면 좋다고 충고한다.

"이번 전시는 무조건적인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작품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전시입니다. 관람을 하기 전에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청소년 이상은 신화를 읽고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을 하세요."

이번 전시는 3월 18일까지 계속되며 4월부터는 프랑스의 또 다른 세계적인 박물관인 '오르세 박물관 전'이 열린다.(02)2077-9648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경남 통영에서는
통영국제음악회가 열린다. 3월 23일 크로노스 콰르텟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동민, 클로드 볼링 빅밴드 등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폐막공연은 뮌헨 챔버오케스트라가 준비했다. 3월 23일~29일까지.(055)642-8662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늘배움 아카데미'를 준비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강연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3월 19일 첫 강의 초대 손님은 한국의 대표 석학 이어령씨. '도시의 삶과 문화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051)749-5633

강원 횡성에서는
전통민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21회 태기문화제'가 열린다. 행사는 태기제례, 농요 및 민요 대회, 인기 영화 상영 등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고부떡만들기, 연날리기 시범 등이 진행된다. (033)340-2546

경기 광명 어린이 도서실 청개구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책 읽어주는 도서실'을 열고 지역사회의 명망가가 함께하는 도서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꿈을 길러주고 있다. 대상은 유아~초등학생이며 청개구리도서실 자원활동가 및 지역 인사(독서 릴레이)들이 진행을 맡는다. (02)2619-6148

용인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07 상반기 놀토 프로그램으로 '역사야 나오너라:책속에서 배우는 주제별 역사교실'을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용인시재 초등학교 어린이며 3월 10일~6월 23일까지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에 계속된다. 신청은 용인시립도서관 홈페이지(yonginlib.or.kr)에서. 저학년 30명, 고학년 30명 선착순 마감.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이정연 · 문선비양 만해백일장 대상 수상

한마음선원 지도교사상 선정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가 3 · 1절을 기념해 3월 1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28회 전국 만해 백일장'에서 이정연(기전여고2) 문선비(보성여고2)양이 각각 시 · 시조 부문과 산문부문에서 만해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또 장원에는 시 · 시조부문에 김현진, 윤지영(광명북중3) 추윤진(내정중 3) 김진규(안양예고3) 정상조 조재연(명지대1), 산문부문에 박수빈(의왕덕성초5) 노윤아(서울 남성중 3) 정다솜(광명북고3) 이진송(이화여대1) 엄민혜(고려대 2)씨가 수상했다.

또 시 · 시조 부문에 우보경(효제초2) 정은영(매원중3) 이정환(동화고3) 이수미나(한양대1), 산문부문에 정지훈(은석초6) 조혜수(휘경여중3) 이해나(송호고 3) 서상희(잠실여고3) 이정혜(순천대2)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장려상 시 시조 부문에는 초등부 조우영(인천불로초3)외 15명, 중등부 김하연(동아여중3)외 9명, 고등부 김경(안양예고2)외 14명, 대학부 박선영(건국대1)외 6명이, 산문 부문에 초등부 우성경(서울수색초5)외 13명, 중등부 이혜원(정신여중 3)외 9명, 고등부 박민정(포항영일고 1)외 14명, 대학부 전민영(경희대2)외 8명이 수상했다.

특별상 지도교사상에는 한마음선원 지도교사들이 선정됐다.

김원우 기자

불교명상지도자양성


ГЭРЧИЛГЭЭ


보현 김옥자 박사
(세계불교 명상센터 원장)

(1)가정과 직장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3)신체허약 · 정신 빈곤 · 가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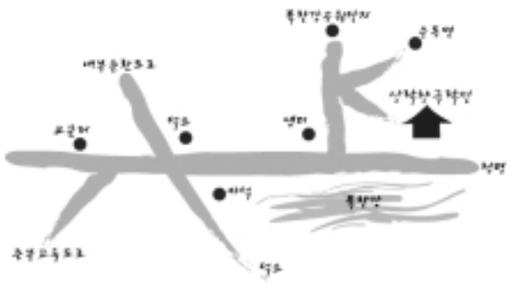
① 일반과정 : 건강 · 두뇌개발 · 단주 · 금연 · 비만크리닉 – 제 1차 3개월
② 전문과정 : 견성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뎀브렐스님
(몽골 다시쵸링)


ГЭРЧИЛГЭЭ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 계 불 교 명 상 센 타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내 옷이 (갈기갈기/발기발기) 찢어져 있었다. 미라는 편지를 (갈기갈기/발기발기) 찢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갈기갈기는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모양.
발기발기는 자꾸 찢는 모습.

오늘 오후 (한때 비/ 때때로 비)가 왔다.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왔다. 내리는 비를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 의미에 맞는 말을 써야 되겠지요.

한때 비–한 차례 내리는 비,
때때로 비–여러 차례 내리는 비

내가 보기에 이 일은 (하루 이틀/한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하루 이틀–하루나 이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이틀–약 이틀 정도
그제 왔으니 한 이틀 머물다 가는 셈이군.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고침 617호 '우리말…' 코너의 설명중 '갑절이 곱절보다 많은데…' 는 '곱절이 갑절보다 많은데…' 로 바로잡습니다.

'비극' 의 요소 파악하면서 읽어보세요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소포클레스作 '오이디푸스왕'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오이디푸스왕' 을 소개해 볼까 해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비극의 전형이라고 찬양을 받은 이 작품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운명 비극, 또는 성격비극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요. 아무튼 작자 소포클레스는, 신은 인간 위에 존재하며, 신의 세계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아 오이디푸스를 테에베 왕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나,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힘도 결국 하나의 힘이며, 인간은 그러한 힘의 전모를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접할 때 인간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테에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아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아폴론의 신탁에 의하면 그 아들은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라이오스는 하인을 시켜 아기의 발목을 묶어 산중에 버리라 했으나, 그는 차마 왕자를 죽게 할 수 없어 소생이 없는 이웃나라 코린토스 사람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이 왕자는 어느 날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취객으로부터 듣고, 델피에 가서 아폴론에게 물어 보죠. 그런데 신탁의 예언은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것. 왕자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코린토스를 탈출, 테에베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마차와 승강이 끝에 우연하게도 마차에 탔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한편 왕자는 테에베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던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퇴치한 공로로, 테에베의 왕위를 계승하고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지요. 그 뒤 오이디푸스가 선왕

'오이디푸스 · 엘렉트라 콤플렉스' 심리학 용어 두 개 꼭 알아둬야

라이오스의 살해자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생모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가 목을 매어 자살한 뒤였으므로, 그는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한 자기의 눈을 뽑아 버리죠.

이 소설을 읽고 '비극' 의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심리학 용어 두 개도 꼭 알아 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였던 프로이트는 고전작품을 즐겨 읽고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할 때 신화를 많이 인용했다고 하지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도 그 중 하나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남성의 경우 3~5세의 유아기에 어머니에게 성적인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일컫는 프로이트의 용어랍니다.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는 동일시로 변하며 여기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애를 가지게 되지만 신경증 환자는 이 극복에 실패해 사회적으로 억압된 이 욕망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꿈속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했어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극복이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했다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은 항상 어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함께 '엘렉트라 콤플렉스' 란 말도 알아 두면 좋아요.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남자 아이가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를 가깝게 여긴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하죠.

흔히 여자 아이가 어머니를 적대시하고 아버지를 가깝게 여기는 심리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동생 오레스테스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가 보여 준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에서 유래한 것이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책이 너무 너무 읽기 싫어요.

Q: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저는 평소 책을 너무 안 읽어서 탈이에요. 특히 과학도서 같은 건 너무너무 읽기 싫어요. 이제 유식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ID: keroro1234)

A: 저런, 책 읽기가 힘든가요?
하지만 올바른 독서방법이라고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학생들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아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학생은 특히 과학 도서를 읽기 힘들다고요. 사실 과학에 큰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과학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딱딱하고 건조한 과목으로 인지하고 있고 만화도 아닌 책이라니, 힘들지요.
처음에는 모험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잘 생각해보기 바래요.
그리고 밑에 글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1.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신문을 스크랩하세요.
3. 부모님과 함께 1주일에 2~3일 정도 서점에 가 보세요. 책은 항상 직접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과학책도 학생에게 재밌는 책을 찾을 수 있을거에요.
4. 독서 클럽을 만드세요. 책을 한권씩 나눠 구입해 돌려 보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지요.
5. 1권 읽는 평균 기한을 정해야 해요.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1권 정도 읽을 것을 권합니다.
6.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간단한 내용정리와 느낀점을 글 ·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책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독서는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내일도 힘든 것은 아닙니다. 걱정 말고 책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한마음상담연구소)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단 종지종풍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행 자 모 집)

종 정 : **각암 대종사**
부 종 정 : **혜산** 중앙종회의장 : **정관**
총무원장 : **능인**
중 앙 선 원 장 : **혜일** 사정원장 : **운암**
중앙연수원장 : **범아** 포교원장 : **향운**
교육원장 : **정도** 무술연수원장 : **무성**
총무부장 : **정타** 재무부장 : **무심**
교육부장 : **명등** 사회부장 : **도안**
문화부장 : **혜명** 호법부장 : **도천**
규정부장 : **혜능** 사서실장 : **자은**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부처님 탄생하신
나라에서 모셔온
달라이라마 예증
림마 돌체 라마와
티벳스님 8명

1.티벳스님 조상 합동 천도재 뿌쟈
2.국제 보살계 (판챠실라) 뿌쟈
3.마정수기 소원성취 뿌쟈

위 내용 법회 행사를 원하시는 사찰에
적극 협조 해 드립니다.

※만다라 또는 어떠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문 의: (054) 535-1669 / 011-229-1068
016-9281-1666
▶후 원: 한국불교 사암 총 연합회
해원 여행사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마음 속 자비 길러 세상 따뜻하게…

제프리 홉킨스가 말하는 '자비명상'의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했던 수많은 생각과 행동들.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욕망과 분노, 질투, 집착 등으로 얽히고설킨 생각과 행동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없이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욕망과 분노 등에 사로잡힌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된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을?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하다는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비명상
제프리 홉킨스 지음
김충현 옮김
불교시대사 | 1만원

1950년대부터 달라이 라마의 문하에 들어가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배우며 수행의 삶을 살아 온 제프리 홉킨스(미국 버지니아대 티베트학과) 교수. 그는 달라이 라마의 지근거리에서 명상 수행법을 배웠고 수많은 강연을 통역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가르치는 '자비 명상'의 핵심을 투철하게 전수 받았다.

'자비 명상'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에서 '자비 명상'은 시작되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자비 명상'의 수행이다. 그러한 수행은 자비심을 기르고 우주의 모든 현상들이 갖는 본질의 모습, 실상(實相)을 깨닫는 힘을 준다.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자비명상> 한 권에 그가 반세기 동안 고민하고 느끼고 깨닫고 연마해 온 '자비 명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자비 명상의 단계를 아주 간명하면서도 실행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내가 행복을 바라듯 타인도 행복을 원한다는 것과 내가 고통을 원하지 않듯 타인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 화두다. 친구와 적, 친구도 적도 아닌 사람(자신과 무관한 사람)까지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자비를 끌어 올리며 살기, 바로 제프리 홉킨스 교수가 제시하는 '자비 명상'이다. 현재 춘천 불교방송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김충현씨가 우리 글로 옮겼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자비 명상'의 단계

1단계 모든 사람은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평등심이 자비 명상의 출발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제, 과거생에서의 자신과 타자의 모습 떠올리기 등을 통해 평등심을 길러라.)

2단계 모든 생명은 친구다(친한 친구에게 갖는 우호감을 적에게도 가질 수 있을까? 가져야 한다. 모든 타자를 향한 우호감을 기르기기 위해 자기의 이기심 버려라.)

3단계 다른 이의 배려를 주의 깊게 살펴라(가장 가까운 친구 혹은 어머니가 내게 베풀어 주는 배려를 깊이 관찰하며 그들과 나와의 관계와 상호 배려의 가치를 살펴라.)

4단계 친절에 보답하기(내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내게 베푼 호의와 내가 그들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5단계 이 사람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을 제하고 좋은 업을 지으려는 노력,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세 가지의 명상법을 꾸준히 이어가라.)

6단계 자비를 기르고 나누는 삶(모든 생명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심어린 소망. 자비의 종류를 알고 고통 받는 생명들을 살피는 데서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라.)

唐 규기 스님의 '금강경 찬술' 주해

동국대 선학과 김호귀 교수가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새롭게 선보였다. <금강경>에 대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있지만 주석서 해설은 드문일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당나라 규기 스님(632~682)의 <금강반야경찬술>을 번역 주해 한 것이다. 자은대사(慈恩大師)로 더 잘 알려진 규기 스님은 스승인 현장 대사를 도와 역경사업에 힘썼는데 특히 <성유식론> 번역에 공이 컸던 인물이다.

이 책은 특히 <금강경> 뿐만 아니라 금강경론이 등장하게 된 인연생기를 설명한다. 천친의 <금강경론>에 대해서는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로부터 <금강경>의 내용을 게송형태로 전수했고, 천친이 그 뜻을 무착보살로부터 이어받으면서 무착의 <금강경론>과 천친의 <금강경론>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 <금강경>과 <금강경론>을 언제 누가 번역했는가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문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등 전통적인 도안에 의해 제창된 삼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서분에서는 유치분을 설정하고, 통유치와 별유치로 나누었다. 또 정종분에서는 초주설법과 후주설법으로 나뉜다. 이어 유통분에서는 희오수행분(喜悟修行分)을 설정하고 경전에 대한 주석을 마쳤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찬술
김호귀 번역
중도기획 | 1만5000원

"당신이 나보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Others before myself)' 이 말은 티베트 어린이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표어이다. 평생 얼마나 남을 도왔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언제나 '나'보다는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에는 나라를 중국에 빼앗겼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티베트인들의 맑고 순수한 정신이 담겨 있다.

티베트에 관한 책은 시중에 많다. 여행자의 시각으로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저자가 수개월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람살라와 라다크, 남인도, 네팔 등을 다니며 티베트 정착촌과 티베트 어린이마을을 취재해 글과 사진으로 엮었다는 것이 이채롭다.

그곳에서 저자는 티베트인들을 통해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놓여날 때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다.

또한 이 책에는 티베트를 탈출하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없어졌어도 중국인을 위해 기도하는 소년 믹마, 벌레 한 마리도 전생의 인연으로 생각하는 아이 나왕 등 티베트 어린이들의 숭고한 자비 정신도 일상의 단상을 통해 소개했다.

이 책은 2003년에 출간된 <티베트의 아이들> 원고를 바탕으로 책에 등장했던 이들의 뒷 이야기와 이후의 여행에서 만난 이야기를 보태서 재탄생했다. **김주일 기자**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정희재 글/사진
샘터 | 1만2000원

보살님! 화려한 장식의 의미는?

'보살'이란 말은 많은 이미지들을 연상시킨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등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보살. 절에 다니는 여자 신도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뭔가 특별한 원력을 가진 사람을 빗대 부르는 호칭. 화려한 장식과 남성도 여성도 아닌 듯한 외모 등.

대개의 불자들은 보살이라는 말이 갖는 여러 의미들을 상황에 따라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살의 종교적 의미라든가 관련 신앙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게다가 보살상에 장엄된 보관이나 복식 수인과 지물(持物) 등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영순 교수(몽골 국립기술과학대학교 의상디자인과)가 실크로드를 통한 보살상의 복식 변화를 연구하며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강해 출간한 <보살 – 유럽과 아시아를 한 몸에 담다>는 '보살'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대승불교의 출현으로부터 대두된 보살 사상의 근원부터 '보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불자들이 관심을 갖는 보살상의 화려한 장엄물들과 보관 등에 대해 유래와 사상적 배경 신앙적 의미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동양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보살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임연태 기자**



보살
최영순 지음
운주사 | 7500원

중국 문화를 일군 인물이야기

중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문화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루쉰, 캉유웨이, 치아오관화, 탄스퉁 등이 머문 집과 골목을 거닐며, 뜻하지 않게 만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대한 문화인들의 또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저자는 또한 광범위하게 찾아낸 관련자료를 통해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인물에 대해서도 새 관점을 가지고 재평가 돼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대한 업적과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통해 중국 현대사의 초석을 닦은 이들이다. 하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단지 이들의 업적만은 아니다. 저자는 그들의 좌절과 역경, 방황을 딛고 일어선 성장과 변화, 성숙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김주일 기자**



풍경
천광중 지음
박지민 옮김
현암사 | 1만2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꽃비	원성	마음의 숲
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6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7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혜명
8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9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도솔
10	석가 우리들의 부처님	석주	효림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숭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최초 공개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밥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만 들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가 공개 – 조선일보

교계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가 펴낸 이 책은 자물쇠로 문을 잠근 채 독방에서 수년간 용맹정진하는 '무문관 수행'을 다뤘다. – 연합뉴스

무문관 수행자가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깨치지 못한다면 문 밖의 세상을 나서지 않으리라.' 한국선의 용맹정진하는 기상을 보여주는 무문관 수행을 처음으로 소개한 책 – 부산일보

무문관의 의미와 역사, 수행일기와 현장, 무문관을 거쳐간 고승들을 담았다.
특히 한 구도자의 '목숨 건 수행일기'가 최초로 공개돼 주목을 끈다. – 불교신문

불교TV가 다큐멘터리 무문관 수행을 일반에 소개한 적은 있지만, 무문관의 의미와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술로는 이번 책이 최초이다. – 불교TV

무문관 수행일기는 남쪽의 선원 무문관에서 3년 7개월간 폐문정진을 마치고 나온
한 수좌스님의 병고를 이겨내며 쓴 생생한 참선 수행기록이다. – 현대불교신문

| 김성우 엮음 | 신국판 304P • 12,000원 • 2007년 1월 발행

| 제 1부 | 무문관, 생사해탈의 관문
| 제 2부 | 무문관 수행일기
| 제 3부 | 한국의 무문관 선원들 (도봉산 천축사, 계룡산 대자암, 제주 남국선원, 백담사 무금선원, 천성산 조계암, 영남불교대학 무일선원, 백련사 만덕선원)
| 제 4부 | 문없는 문을 투과한 고승들 (경허스님, 효봉스님, 경봉스님, 성철스님, 청화스님)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 2198-5151 (051) 244-1251

교보문고 불교서적 1위, 불교서적 총판 판매율 1위 (2월 현재) !!!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지안스님의
끊임없는 간경과 정진이 함께
녹아있어 큰 감동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금강경이야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구도심으로
지금 만나보십시오.

지안(志安)스님
신국판 양장본·235P 12,000원

월암 스님(지리산 벽송사)의
간화정로 (看話正路)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인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서로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임을 제시해 준다.

월암(月庵)스님
양장본·512P 18,000원

“부처님과 내마음 붓 끝에 일치”

‘김경호 전통사경의 계승과 창조展’

6월 20~26일 / 서울 경운동 부남미술관

“사경은 종합예술입니다. 단순히 글만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표지와 그림을 그리고 경갑과 경함도 만들기 때문에 서예와 공예가 함께 어우러진 예술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 부남미술관에서 ‘김경호 전통사경의 계승과 창조전’을 여는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사진)은 사경 작업이야말로 모든 불교미술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는 총체적 예술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증거가 김 회장의 이번 전시회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사경전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강경 등을 옮긴 전통사경 10점외에 선묘로 표현된 불화와 만다라 등 응용사경 10점, 목판본과 석각유물탁본 및 동종의 문양 등을 복원한 문화재 복원사경 10점, 생활사경 10점, 창작사경 5점 등 총 45점이 선보인다.

김 회장의 글씨를 한번쯤 접했다면 정교함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의 글씨는 격조 높다는 평가가 많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필선과 선묘는 금은니로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섬세하고 미려하다.

“사경은 부처님과 내 마음을 붓끝에 하나로 모아 경전 글귀를 한 자 한 자 옮기며 매순간 일념으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참선 못지않은 수행 방편입니다. 보통 한 작품을 하는데 심지어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만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지요.”

김 회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이유는 끊임없는 사경 기법의 개발에 있다. 특히 응용사경은 동양의 상징을 그리거나 보살도, 만다라, 상원사종, 비천상, 불족도 등 불교미술을 손수 수정복원 한 뒤 사경을 곁들였다. 그래서 응용사경에서는 수직으로 곧게 선 붓의 에너지와 정화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 김 회장이 대표 작품으로 손꼽는 야심작은 따로 있다. 창작 사경인 ‘일불일자 법화경 약찬게’다. 김 회장이 직접 창안한 독창적 방식에 의해 사경 됐기 때문이다. 듣기만 해도 정교함에 혀가 내둘러진다. 우선 1㎝의 공간 안에 부처님을 그린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복장에 법신사리를 봉안한다는 의미에서 2㎜~3㎜ 정도의 깨알 같은 크기로 경전 한 글자씩 서사한다. 김 회장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의 공간에 많게는 50개가 넘는 가는 선을 그어 넣어 정교함의 극치를 표현했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일자일불법화경’이 있지만, 이는 1행은 부처님 경전을 서사하고, 다음 1행에는 부처님을 그린 이분화된 형태의 사경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사경재료의 선택에서도 독특하다. 주로 사용하는 먹 외에도 사슴에서 채취한 녹교수에 개어 금니(金泥), 은니를 만들며, 사경 후에는 연마를 해 작품에 광택을 낸다. 특히 녹교수의 사용은 8세기 문헌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한 전통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02)720-0369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일불일자 법화경 약찬게’.



창작사경 · 선묘 불화 등 45점 전시
‘일불일자 법화경 약찬게’ 야심작
녹교수에 금니 전통재료 사용 독특

生活속의 詩畵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⑤

팔공산 중암암

장인성 시인

팔공산 꼭대기 아슬한 절벽을 허리 휜 노인이 기어 오른다
가볍고 헐거운 껍질 틈새로 거친 숨소리가 자꾸만 새고 있다.
바람이 새고 있다. 바람이 샐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꺾이던 허리가
법당 앞에 기어이 기울고 만다.
오래된 돌탑처럼 가볍고 헐거운 껍질이 일순에 허물어져
동그랗게 엎드린다.
엎드린 육신이 동그란 무덤처럼 편안해 보인다.



그림: 이상배 화백

중암암(中巖庵)-팔공산 꼭대기 깍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조그만 암자

생가 복원 · 음악상 제정 등

윤이상 탄생 90주년 행사 다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 선생(1917~1995)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윤이상 선생의 생일(9월17일) 전후부터 타계일(11월3일)까지 열리는 기념행사는 8차례에 걸쳐 그의 교향곡 · 관현악 · 실내악 · 칸타타를 연주한다.

1959년 다름슈타트에서 윤이상의 작품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을 초연했던 지휘자 프랜시스 트래비스는 코리안 심포니를 지휘해 9월 16일 개막 공연에서 윤이상의 ‘소관현악을 위한 로양’을 들려준다. 윤이상이 문익환 · 백기완 · 고은 등의 노랫말에 곡을 붙인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도 10월중 부산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또한 평화재단측은 국제윤이상 음악상을 제정해 격년제로 시상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5일 입선작 5작품을 선정하고 9월 결선 연주회와 최종 심사를 거친 후 9월 16일 첫 수상자를 발표한다. 윤이상의 이름을 딴 ‘서울 윤이상 앙상블’도 상반기중으로 창단한다. 이외에도 윤이상 선생이 말년을 보낸 베를린의 생가도 복원해 생전에 그가 작곡한 악보, 유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이상 평화재단은 올해 기념 사업들을 위해 최근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90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02)723-0364

김주일 기자

김덕수 사물놀이 50주년 공연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씨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인인생 50주년 기념공연-길’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에서는 박병천(진도씻김굿 · 인간문화재), 안숙선(가야금산조 및 병창 · 중요무형문화재), 이호연 등 특별출연자들과 김덕수가 이끄는 한울림예술단, 한울림전통연희단 등이 함께 한다.

특히 2부 공연에서는 김덕수씨의 화려한 발놀림과 상모짓을 볼 수 있는 선반설장고를 시작으로 한국의 탈춤, 동해안별신굿, 판굿 등의 놀이판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진다.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④

운문 스님 활동으로 작곡 개념 형성

1960년대 - 1970년 ①

직접 작사 오르간 치며 포교에 앞장
62년 조계사 연화어린이합창단 조직

김정묵 포교사의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책은 제1부 삼보편, 제2부 의식편, 제3부 집단편, 제4부 어린이편, 제5부 경전의 노래로 구성되어있다.

작사자별로 분석해보면 조학유 25곡, 권상노 15곡, 백용성 7곡, 김정묵 44곡, 신소천 5곡, 석운문 4곡 김태흡 4곡, 조중현과 김어수 각각 3곡, 그밖에는 박희선, 석동화, 석성주, 안진호, 이광수, 허영호 등이 있었으며 작곡가로는 김재민 4곡, 김동필과 김우춘이 각각 3곡, 랑승일과 죽헌이 각각 2곡, 강영대, 백우용, 이강열, 윤원주, 이상철등이 각각1곡씩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본인으로 목촌번과 하다상이 1곡씩 기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수록된 곡목은 모두 132곡이지만 작곡자가 기록된 찬불가는 21곡뿐이다.

1956년 정운문 스님이 불교음악 활동을 시작 했다. 김정묵 포교사는 운문 스님에게 모든 곡을 이입하고 손을 놓았다고 한다. 기록된 문서를 보면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는 조학유 스님, 권상노 총장, 박용성 스님이, 1930년에서 1960년대까지는 김정묵 포교사가 1960년대부터는 정운문 스님이 불교음악의 선두에 서서 찬불가를 움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정운문 스님의 활동상황을 짚어 보자. 운문 스님의 등장 이전까지는 불교 음악에 작곡이란 개념이 없었다. 운문 스님이 등장하면서 작곡이란 개념이 형성된다. 본인이 작사한 뒤 작곡가를 직접 섭외하여 곡을 창작한 다음 그 곡을 직접 오르간을 치면서 포교하였다는 사실이다.

1956년에 목포에 있는 정혜사에서 한 학교에 근무했던 김재민 선생을 만나 운문 스님의 최초의 작품 ‘배하세’가 창작되었다. 그 후 1957년에는 추월성씨의 ‘삼보님 앞에’가 창작되었으며 1959년에는 해인사 금선암에 머무르면서 만든 ‘해인사 풍경소리’를 해인사에서 운영하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1960년에는 김기우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정민섭의 ‘하얀 구름 검은 구름’이란 창작곡이 나왔다. 1962년에는 김규환 선생과 김주영씨를 만났고, 1963년에는 김희조, 이해창, 이찬우, 김주명씨를 1964년에는 이호섭씨를 1965년에는 이수연, 이수인, 이은열, 조병선씨를 1968년에는 홍원기, 장상덕씨를 만났다. 많은 작곡가들에 의하여 쓰인 곡들은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사용되었다.

운문 스님은 1962년 3월 조계사 주지시절 연화어린이합창단을, 1964년 2월에는 개운사 보리수합창단을 창단했다. 1965년에는 서울 삼청동 칠보사에 칠보사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 불음포교에 앞장섰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200개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2007학년도 제1기생 모집
구 성 기 학

담당교수	김도희		
교수약력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교육기간	1학기 16주 화요일 18:30 ~ 21:00		
개 강 일	2007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2시		
교육목표	점법과 개운을 공유하는 학문으로서 시간에 따른 공간의 방향에 매겨지는 운기를 가늠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김명법이다. 상담자들에게 길흉의 기폭을 줄이고 좋은 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는데 목표를 둔다.		
수 강 료	30만원	모집정원	30명
교 재	특수교재		
강의내용	1. 구성의 역사와 구성의 위치 2. 자백성(상원, 중원, 하원)의 구성과 음둔, 양둔법 3.본명성 찾는법 4. 정반 구성노 5. 구성의 성격과 사주의 함수관계 6. 각궁의 성격과 십이지지의 함수관계 7. 각 궁이 가지고 있는 특성 8. 본명성과 구성의 성격 9. 구성으로 보는 건강상태 10. 구성이 김성과 혼인운 11. 구성으로 보는 사업운과 재운 12. 구성방위(가족, 학교, 수험생, 신)의 위치 13. 구성회자 년, 월, 일, 시 짜는법 14. 구성의 암 파 대충의 위치와 역할 15. 불변의 숫자 실전 사용법 16. 구성 실전사용 방법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담당교수 011-758-4000 / ☎02)745-8053
www.dongbang.ac.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맑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바로보인 전등록
바로보인 선문염송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3월말까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3. 육조의 오도송(상)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내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생멸 없음을 내 어찌 생각했으리오!
자성이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추었음을 내 어찌 기대하였으리오!
자성이 본래 동요 없음을 내 어찌 예측했으리오!
자성이 그 자체로 능히 만법을 냄을 내 어찌 알았으리오!
何期自性 本自淸淨
何期自性 本不生滅
何期自性 本自具足
何期自性 本無動搖
何期自性 能生萬法
–육조 혜능

6조 혜능(六祖慧能, 638~713)은 시법시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를 지은 후, 오조 홍인의 부름을 받아 <금강경> 법문을 듣는다.

이때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應無所住以生基心)"라는 구절에 이르자 혜능은 언하에 확철대오하니,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 구절은 혜능이 출가할 뜻을 일으키는 '인연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위의 게송은 극도로 진공상태인 무아경지에서 심정을 토로한 오도송이다. 현대수사학으로 보면 진술시인 독백시다.

>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내 어찌 알았으리"
> 제멋대로 잎이 지고 꽃이 지듯
> 일체만물이 본래 참모습임을 알아야

이 오도송을 듣고, 혜능이 진실로 자성 본원에 이른 것을 안 홍인은 "자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을 공부하여도 아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본심을 알고 자성을 터득한 사람이야말로 장부요,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며, 이 사람이 부처다(不識本心 學法無益 若識自本心 見自本性 天人師 佛 世尊)"라고 설하고, 조사의 의발과 돈교의 법을 밀지한다.

혜능은 광동성 영남에서 태어났다. 성은 노씨고 이름은 능이다. 너무 가난하여 글자를 깨칠 기회조차 없었던 그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읽는 <금강경> 독경소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난다"를 듣고 바로 그 뜻을 알았으며, 이 경전의 말씀을 베푸는 곳이 하북 황매산 5조 홍인(五祖弘忍, 601~678)임을 알게 된다.

혜능은 멀리 하북 황매현 빙무산(별칭 동산)을 찾았다. 홍인은 그를 보자, 몇 마디 테스트를 했다.

"영남은 오랑캐라, 그런 주제에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하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겠습니다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 오랑캐와 스님이 어찌 같겠습니까마는 불성에야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육조법보단경> '오법전의' 제1.)

이 말을 들은 홍인은 이 사람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근기가 빼어난 사람임을 발견한다.

혜능에게 방앗간 일을 시킨 지 일여덟 달이 지난 어느 날, 조사께서 법통을 전승시킬 때가 되었음을 알고 산중 모든 대중을 불러 모으고, 지혜를 스스로 살펴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으로 게송을 하나씩 지어 오라하며, 만일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옷을 전하여 제 6대 조로 삼겠다고 공포하였다.

이때 대중들의 교수사인 신수는 법과 옷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스승의 분부를 받드는 의미로 아래의 게송을 지어야 했다. 신수는 게송을 오조께 바치려하니, 심중이 황홀하고 온 몸에 땀이 흘러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보고 판단하도록 복도의 벽에 붙였다.

이 게송을 본 5조는 제자들에게 이 게송을 암기해서 따르면 그저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이 게송을 들은 혜능은 자기가 지은 아래 게송을, 글을 아는 사미에게 써 달라하여 신수의 게송 옆에 붙이니, 오조께서 보고 혜능이 자성을 보고 견성하였을 알고 삼경에 가만히 불러서 6대 조사로 인가했다. 신수와 혜능의 게송을 살펴보자. (계속)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❸

단추

문숙 | 천년의 시작





한 마리가 가슴을 넓게 벌리고
또 한 마리는 뼈까지 드러내며
바다의 푸른 기억을
서로의 품으로 껴안는다
가슴을 갈라 등을 품는 아픔의 두께

잔물결이 사라진 시간
머리도 비우고 지느러미도 접은 채
서로에게 절여진 고등어 두 마리
그들의 접힌 상처 사이에
허옇게 말라붙은 바다가 보인다
– '부부' 전문

모두 3연 12행의 이 시는 몸이 펴진 채 서로 겹쳐져 있는 소금 간을 한 고등어자반 두 마리를 부부로 착안하여 서술하는데 매력이 있다. 특히 1연에서 부부가 고등어자반처럼 "제 속을 서로 버리고 한 쌍이 되었다"는 부부생활의 원리를 암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2연에서는 배가 갈라져서 벌어진 자반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서로의 품으로 껴안는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가슴을 갈라 등을 품는 아픔의 두께"라는 표현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화자는 부부의 관계를 서로에게 절여지는 고통의 관계로 암시하고 있어 아프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숙세에 맺은 깊은 인연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스런 관계도 숙세에 맺은 인연 때문이리라. 이런 그가 어느 겨울날 칠장사에 갔다가 시를 건졌나보다. 눈 오는 날, 번잡하지 않은 절의 풍경을 고요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일상의 제재 보편적 삶의 원리로 승화

좌판 위에 고등어자반 한 손
제 속을 버리고 한 쌍이 되었다

흰 고무신 한 짝
댓돌 위에서 낯빛 푸르게 외롭다
댓잎 서걱이는 뒷마당을 지키는
개가
가끔 오옴 오옴 경을 외듯 짖는다
세상길을 지우며 눈이 내린다.
– '겨울 칠장사' 전문

문숙의 시는 일상 제재를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과 내용이 난해하거나 모호하거나 기괴하지 않아 읽기에 쉽고 편하다. 그는 주로 일상, 특히 주부 일상에서 채취한 제재를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형상화해 내는데 탁월함을 발휘하는 언어의 마술사이다. 이를테면 헌 고무장갑, 어머니, 치약 껍데기, 항아리, 단추, 새우튀김, 버선코, 소화기, 수건, 페트병, 마늘, 낡은 장롱, 부부, 금간 화분, 나무도마, 종이컵 등을 제목으로 삼거나 시의 제제로 등장시킨다. 그는 좌판 위에 한 손씩 묶여 있는 고등어 자반을 제재로 포착하여 시적 형상화를 통해 부부애로 전화시킨다. 한 손은 물고기 두 마리를 세는 단위이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❸ 세 가지 누룽떡

산중의 스님들은 삭발하고 목욕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날은 찰밥에 미역국 그리고 찰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찹쌀은 예로부터 스님들의 보양식으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병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 보양식으로 널리 쓰여
찰떡에 된장국 모유 생성 도움

예를 들어 늑막염에는 찹쌀현미 1홉과 밤나무 잎 15장을 물 1되를 넣고 끓이다가 약한 불에 졸여 5홉이 될 때까지 달여, 이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기에 들었거나 모유가 부족한 산모의 경우 찰떡을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찹쌀로 만든 떡에 감자, 연근, 두부 등을 넣어 부쳐내는 '누룽떡'입니다. 누룽떡은 누룽지 처럼 떡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떡은 절에 절편이 많이 남았을 때 딱딱해진 떡을 부드럽게 만들고, 감자와 연근 등을 이용해 색다른 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 먹던 것입니다.

오늘은 맛있으면서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누룽떡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누룽떡

재료: 찹쌀, 쑥, 감자, 연근, 두부, 소금, 참기름, 들기름, 간장

1. 찹쌀을 씻어 잘 불린다. 쌀 한 톨을 엄지와 검지로 비볐을 때 잘 으스러지면 적당히 불려진 것이다.
2. 쑥은 소금을 조금 넣고 끓는 물에 무르게 데쳐 건진 후 물을 꼭 짜둔다. 소금을 넣으면 색이 더욱 푸르게 데쳐진다.
3. 시루에 베보를 깔고 찹쌀을 푹 찐 다음, 솥뚜껑을 열고 나무주걱으로 뒤적거리며 연한 소금물을 넣어 다시 푹 찐다.
4. 다 쪄진 찹쌀은 절구에 넣고 밥알이 다 풀어지도록 찧어 떡을 만든 후 두께 1cm, 길이 5cm 정도의 사각형으로 잘라 비닐로 하나씩 포장해 냉동실에 보관한다.
5. 감자는 가늘게 채 썬다. 들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감자를 깐 후 그 위에 찰떡 하나를 올려놓고 다시 감자 채 썬 것을 도톰하게 깐다. 찰떡이 열에 녹으면서 감자와 어우러져 노릇하게 익는다. 감자채가 익으면 뒤집어 다시 구워낸다.
6. 연근은 껍질을 까고 둥근 모양 그대로 2mm 두께로 썬다.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근과 떡을 올린 후 부쳐낸다.
7. 두부는 5mm 두께로 썰어 같은 방식으로 굽는다.

역학 개인지도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남 · 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변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27471/ 국민은행 222-25-0005-381 (입금자: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역학속성 개인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건강뜸
기초에서 완성까지
1개월 수료후 문서기증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넌)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스님 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각종병고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병고치료(의료)봉사 원력을
세운 비구입니다. (신병,정신
병,중풍,빙의등 각종 만성불치병)
병고치료 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분을 찾습니다
011-222-8485
침구의사, 중의학박사 성월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절충)
50~60대
▷ 서울구로
010-9478-9607

종무원
구 함
PC와 숙식 가능한
40세이하(여)
011-415-5558

함께일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7-206-011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시내,월보시 100만원
052)275-0829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모십니다
(부부또는 가족 3인까지
가능함)
전북 순창. 아미산 보현사
011-603-8450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및 서화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불사도우며, 안거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기공, 대체의학의 능력있는
포교선원 운영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진솔한 봉사정신으로
동참하실 60대 처사님
차량소지자 연락바랍니다
010-3348-4242

비구니스님
되실분을
찾습니다
▷45세 미만
010-3727-1514

상주할수 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스님 필요한 사주께서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83-005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11-9795-7602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 상인동)
053)632-4844
053)641-4844
010-4560-66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근교
55세 전후
010-5255-038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월 100만원)
서울 상계동
010-7225-253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재혼이며, 현 거주지
의정부에 살고 있는
46세(국가 공무원)
남자입니다
불교인이며, 학력 고졸이상의
여성분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619-6107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조용한 산사에서
천일기도하실
스님과 행자(처사)님,
기도하면서 사실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신심있는 종무원
(PC가능자 및
숙식가능하신분)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324-5103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산세수려한 사찰중
염불기도전문스님이
필요한 사, 암은 전화주세요
054)433-6315
010-4520-67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2007학년도 제 1기생 모집
육효학 전문가 과정

자미두수 강좌안내

관 상 학

우리 이제 앉아서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단연코 일어서서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 봅시다.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

易과 占의 유래(선 후천 팔괘)	육십갑자 납음 오행 해설 및 활용
팔괘와 육십사괘가 이루어지는 구조	구재점, 구관점, 시험점
오천지세걸	결혼점, 매매점, 가출점
육십사괘 풀이 해석	질병점, 소송점
팔신결	천시점, 묘지점
육효 전문용어 풀이와 작용	하지장
천금부 및 쇄금부	내정법
십팔문답	실전 활용 풀이

입학안내
◆ 입학자격 : ○ 육효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자
○ 역학분야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 전문 상담사 및 교육 강사 희망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2매
◆ 모집인원 : 35명(선착순 마감)
◆ 교 육 비 : 90만원(16주 과정)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육효학 전문가 자격증 수여
◆ 졸업 후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위원증 수여

교육기간
◆ 개 강 : 2007년 3월 13일 화요일
◆ 교육기간 : 2007년 3월 13일- 6월 26일(16주)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장 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 교육원
◆ 교 수 진 : 한중수, 유방현, 노재환 외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진

문의전화
☎ 02) 745-8053, 02-953-3500
담당 011-9902-4640

담당교수	유방현
교육기간	1학기 (16주)
강의시간	월요일 10시 30분 ~ 13시 00분
개 강 일	2007년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목표	천문학에 근거한 占학이 아닌 命학으로서 탁월한 적중률과 명쾌함이 특성인 자미두수학을 통하여 동양학의 과학성을 소개하여 정확한 자기존재의 인식과 역할을 확립시킴
수 강 료	30만원 / 모집정원 25명
특 전	㉠ 동방대학원 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학술위원증 수여 ㉢ 수료 후 우수학생 교육강사 추천
강의내용	자미두수 관련 명리 이론정의 십이궁의 이해와 의미 기본 명반의 구조 및 居의 조합 특성 자미두수 격국 및 논명방법 자미두수 실제 사례
연 락 처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 02) 953-3500, 745-8053 담당교수 : 011-9902-4640

담당교수	최인영
교육기간	1학기 (16주 과정)
강의시간	화요일 14시 ~ 16시 30분
개 강 일	2007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2시
교육목표	知人(지인) : 상대를 알면서 正己(정기) : 자신을 바로 세운다. 知彼(지피) : 상대를 알면서 知己(지기) : 자신을 안다
수 강 료	30만원 / 모집정원 20명
특 전	㉠ 동방대학원 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학술위원증 수여 ㉢ 수료 후 우수학생 교육강사 추천
강의내용	삼정(얼굴과 몸)과 오행 오악과 사독, 육요와 심이궁 이목구비와 눈썹의 개요 찰색과 주름의 중요성 오행형에 따른 특징과 사상체질의 소개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연 락 처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 02) 745-8053 담당교수 : 010-3908-7150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김해 ● 위치:경기도 ● 위치:대전
● 법당:19평 ● 법당:170평 ● 법당:30평
● 요사:40평 ● 요사:100평 ● 요사:60평
● 부지:150평 (무속인환영) ● 부지:3500평(외 2500평) ● 부지:700평
● 가액:2억7천 ● 가액:65억 ● 가액:1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차로 2~3분 거리
● 법당 30평, 요사채30평, 10평,조경완료
● 바로 앞큰 계곡이 있어 경치수려
● 심야전기 지은지 2년
● 가액: 3억 (절충가)
016-274-3170

포교당안내
● 위치: 동두천 땅 500평(산)
● 법당 50평,요사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9-477-6674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운영하실분
전국 포교당 양도,운영하실분
전국 임야, 토지, 양도, 구입하실분
부전스님 공양주 갈분이나 쓰실분
천하명당(사찰,묘지,별장)을 구하시는분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중구 내동 신포시장 부근
● 삼층건물중에 3층, 30평, 전세만 6,500만원 월세 없음.
● 법당1, 방3, 부엌1, 화장실, 법당시설 양도
017-325-7745
010-7121-0408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방 4칸(스님방, 친견실)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각 시설일체 갖추어져 있음,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53)783-0106
016-528-3736

포교당안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임법당 포교원 방2 욕실 도시가스 조그만 거실겸주방, 부처님 4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무속인도 관계없음
● 꼭하실분 전화요망
010-9913-0031
031)314-003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 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 , 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 : 전체평수 4390평, 대지 2000평
● 허가진행 중 사찰건립계획 요사 겸 주택계획 진행 중 현재 토목설계 1000평 허가 득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 화장실 10평 (계획 진행중)
●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주목군락 형성. 주택1동, 창고 1동
● 촌집 전원주택(텃밭 가능) 목조기와 주거가능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15평, 창고 약 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지하수 청정 1급수
● 부처님 전 기도후 접지 된 땅 ● 양도가액:2억 9천만원
011-741-3415 / 010-6283-9792

사찰(암자) 안내
● 위치: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팝흐르는 비석)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함
● 대지: 약 200평 태양열, 단독지하수 완비
● 요사채(슬라브건물)1층 60평
● 법당:20평(아미타불 삼존불)
● 가액: 1억9천8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8487
010-5883-5005

대찰 최적가람지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임야: 3만 8천평
● 대구에서 30분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거리
● 부처님께 보시하는 심정으로 이 산을 내놓습니다
011-501-19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7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지주가 되었다 하면 큰 부자가 되는 명당
● 약 10,000평 (무엇이든 건축가능), 경관수려
● 토목공사 완료
● 최신식 원룸형
● 60평씩 2동(신축)
● 총 15억(대출 5억가능)
지주연락처 010-8992-6787

사 찰 안 내
● 위치:삼랑진역 10분거리
● 종교용지 1540평
● 논 550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토목공사 완료
● 정남향 좌우청용백호양호
● 매매가 3억원
〈부 지〉
● 위치:부산 일광 바닷가
● 평수:1000평
● 가액:평당75만원
● 달음산 자락
● 1000평 평당35만원
● 정남향 양지바른곳
● 바다전망이 좋은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량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산사용평수 20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 5백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010-9484-7622

포교당안내
● 위치: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방3,주방)
● 평수:2층 34평 (법당, 접견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888-0130

사찰안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암자안내
스님이 공부하던 곳
● 490평
● 금액:1억 5천
011-432-6451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사찰
●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미터 코너 절
● 대지 110평 건평120평 1층점포 4개
● 산림2세대 포함 6개에서 매월 월세 150만원 이상나옴 2층 법당 요사공간 큰방2개 스님방 1개
● 가액:3억 6천 4백만원
● 준비금 1억6천 7백만원이며 개인소유권이전완료 11년된 사찰 완벽함
010-6411-2882(일요일 답사)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대산면
● 대지: 102평
● 법당: 15평 (기와집) 창고 10평, 요사채 10평 부속건물 3개
● 가액: 7천 7백50만원
010-5502-0220
010-2727-3270

기도처안내
● 위치: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태백산 줄기
● 전 4700평(가시오가피 밭) 대지 200평, 건평 50평(2동)
● 특징:산세 수려, 물 좋고 청정지역 기도처나 참선도량으로 적격
● 가액:2억 8천만원
070-70-1231-71
011-776-5569

사찰안내
● 위치:경기도(이천시내) 대지 175평(주차장 30대)
● 법당 1채, 요사채 2채, 삼성각 1채 기도와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중심가 산에 위치)
● 가액:3억 5천만원
016-510-3455
(총무보살)

사찰안내
● 위치:경춘국도(북한강변)
● 부지:2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
033)261-5285
010-2871-5285

포교당 안내
● 위치: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행신역앞) 8층건물의 4층
● 실평수 40평, 큰방1, 작은방1,주방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권리금 포함 1천 5백만원
016-390-2145

사찰안내
● 위치:인천도심 산사
● 부지: 약 800평 법당, 요사 각1동
● 가액:20억
● 도심속 포교 전당으로 불교 문화원 및 박물관 최적
010-3013-4664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교원안내
● 위치: 창원시내 상가건물 4층중 3층
● 평수: 9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 대지:70평 건축 27평
● 임법당, 방3개, 부엌1개, 목욕탕, 화장실
● 텃밭 55평(우물도 있음)
● 가액:8000만원
018-358-6939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12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스님실 30평(방2)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 011-820-4617

사찰안내
● 위치:대구 칠곡 동영
● 평수:385평
● 가액:4천만원
● 대구에서 25분 거리
● 기도장,방, 주방시설 완비 산세수려, 기도도량
● 꼭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508-0177

토굴안내
● 위치: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목조 33평, 임법당
● 부지 405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202-3699
041)753-8137

토굴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 주생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90평 (90평 텃밭사용)
● 방4개,응접,화장실,창고
● 가액 :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0-5631-8439
010-6401-4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등으로 둘러싸인 이천의 요지, 영험한 고려시대 미륵 돌부처님 전장 4.7m 향토유적 지정
● 가액 : 7억원
연락처 : 031)638-6880
010)5600-6880/017)212-6880

미 륵 사 절 안 내
● 위치 : 이천시 갈산동 76-1번지(이천 법원 옆)
● 대지 513평, 도로 30평, 법당 25평
● 특징 :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등으로 둘러싸인 이천의 요지, 영험한 고려시대 미륵 돌부처님 전장 4.7m 향토유적 지정
● 가액 : 7억원
연락처 : 031)638-6880
010)5600-6880/017)212-6880

2007학년도 제 1기생 모집
실상철학전문가과정
실용풍수학 수강생모집
기 문 둔 갑

우리 이제 앉아서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단연코 일어서서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 봅시다.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입학안내
◆ 모집인원 : 35명(선착순 마감)
◆ 입학자격 : ◇ 실상철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 전문 상담사 및 교육 강사 희망자 또는 각종 스포츠 교육 지도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 육 비 : 90만원(16주 과정)

교육기간
◆ 개 강 일 : 2007년 3월 16일 금요일 (개강 당일은 무료강의)
◆ 기 간 : 2007년 3월 16일 ~ 6월 29일까지 (16주 과정)
◆ 시 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장 소 :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 문의전화 : 02)953-3500 / 02)745-8053 담당교수 안병철 016-705-7582

교 수 진
안병철, 노재환, 유방현 교수

교육내용
현대 문명인은 도덕, 자연, 수학 및 외국어를 배워 지식을 갖추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기 위한 도구라 한다면 실상철학은 그 도구를 다스리는 기술과 원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과목이다. 실상철학은 심신을 다스리는 새로운 과목으로 자연치유, 정신건강관리 및 생활 지혜를 깨우쳐 주고 능력을 증폭 시켜주는 진리인 자연법으로 널리 알리고자 실상철학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입학안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3×4cm)2매
◆ 원서접수대금 및 전형료 : 없음
◆ 교 육 비 : 한 학기 30만원 ◆ 등록기간 : 2007년 3월 15일
◆ 등록방법
1)방문접수:우리 문화교육원에 방문 후 원서를 접수등록 후 수강료 납부
2)전화접수: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문화교육원 계좌로 수강료 송금
3)인터넷접수:학교 홈페이지에 접수 후 문화교육원 계좌로 수강료 송금
※하나은행 187-910002-32204(예금주: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내용
◆ 바람과 물의 순리를 이해하고 지리의 조화를 판단하여 개인과 가문의 풍파와 수난을 막아주고 개운 발복하는 실용적 풍수교육에 여려분을 초대합니다.
◆ 풍수관련 사진 자료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한자를 모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강의합니다.

교육기간
◆ 개 강 일 : 2007년 3월 15일 (개강 당일은 무료강의)
○매주 목요일 18:30 ~ 21:00 1학기(16주 과정)
○문의전화: (02)953-3500 / 745-8053
◆ 담당교수 : 이태건(011-424-6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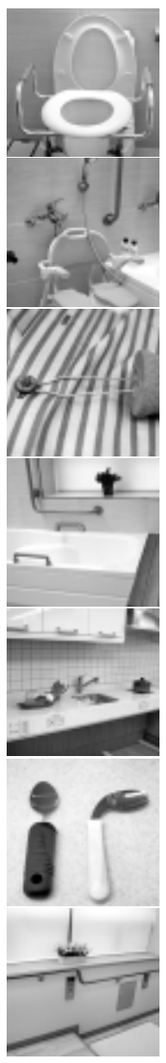
담당교수	김재규 (010-4731-8898)
교수약력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수
교육기간	1학기 강의시간 : 월요일 18:30 ~ 21:00
개 강 일	2007년 3월 12일(월요일) 오후18시 30분
교육목표	옛날부터 천시를 아는데는 태을이요, 인사에는 육임이며, 지리에는 기문이라 하였고 이를 합하여 기을의 삼식이라 칭하였다. 이중 기문은 급속한 현대식 무기의 개발로 은밀히 비전되어 오던 것을 화 서경덕 선생과 토정 이지함 선생이 우리 전통학문으로 개발하였고 이는 단순한 길흉화복을 예건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묘산의 예측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네 바른 길잡이가 되므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수 강 료	30만원 / 모집정원 25명
교 재	홍연휠요(1학기, 교재 미포함)
강의내용	1. 기문둔갑의 기원 2. 홍연국의 예 3. 홍국 포열법 4. 육친 배대법 5. 연국 포열법 6. 연국 포열법의 24절기의 상원, 중원, 하원의 포열법 7. 육십갑자의 배열과 연국 포열의 연관관계 8. 팔괘법의 원리 9. 팔괘법의 포열법 10. 팔문법의 원리 11. 팔문법의 포열법 12. 태을 구성법의 원리 13. 태을 구성법의 포열법 14. 직부법의 포열 15. 천봉 구성법의 원리 16. 천봉 구성법의 포열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어르신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노인생애체험센터’ 현장 ‘고령화 사회’를 둘러싼 담론이 무성하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담론이나 정책은 아직 ‘먼 일’일 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활의 편리’다. 팔 다리는 나날이 무뎌지고 신문 한 줄 읽으려 해도 돋보기에 의지해야 하며, 손 짚을 곳 없인 집 안을 돌아다니기도 벅찬 어르신들의 생활. 그 ‘불편’을 이해해보고 집안을 좀 더 편안한 생활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생애 체험센터’를 다녀왔다.





억제대와 모래주머니, 특수안경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세면대를 사용해 보는 체험자. 사진 오른쪽 위부터 손잡이가 설치된 좌변기, 샤워용 의자, 단추 채우는 도구, 보조 탁자가 설치된 욕조, 높이 조절이 되는 싱크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숟가락, 집안을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 어르신 있는 가정에선 이렇게 하세요!

▷ 현관에 의자와 구두주걱을 놓아두면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다.
▷ 물통은 작은 용량의 용기에 담아 냉장고 중앙 부분에 둔다. 어르신들이 자주 먹는 음식도 손이 닿기 쉬운 부분에 둔다.
▷ 수저는 손잡이가 굵어 손에 쥐기 쉬운 것으로 준비한다. 부분 마비나 손 사용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수저도 판매하고 있다.
▷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다.
▷ 세탁기는 세탁물을 꺼내기 쉬운 위치로 받침대를 설치한다.
▷ 좌식 생활을 한다면 스위치를 바닥에서 80~9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침대는 바닥에서 50cm 정도 높은 것이 적당하다.
▷ 방문이나 가구의 손잡이는 원형보다는 바(bar)형으로 바꾼다.
▷ 욕실에도 팔걸이가 있는 샤워용 의자를 둔다.
▷ 욕조를 사용하는 집은 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나 보조 탁자를 둔다.

“아얏!” “너무 무거워.”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2월 2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노인생애 체험센터를 찾은 부천대 건축학과 학생 14명이 특수 장비를 착용한 채 가정집과 유사하게 만든 체험관에서 이리저리 부딪친다. 자리에 앉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마냥 힘들게만 보인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는 팔 · 다리 · 등을 둔하게 만드는 억제대와 모래주머니, 손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장갑과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귀마개, 시야를 좁게 만드는 안경 등이다. 장비를 착용하고 나면 몸은 구부정해지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게다가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희미하게 들린다. 일반인에겐 ‘비정상적인 상태’지만, 80대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장비라고 한다.

안내에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은 현관과 주방, 거실 등을 재현해 놓은 ‘공공 생활체험공간’. 뻑뻑해진 무릎 관절 때문에 현관에서 신발을 꺼내 신는 일부터 ‘노동’으로 느껴진다. 모래주머니와 억제대를 찬 팔로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떨어뜨리기 일쑤고, 식탁 의자에 앉는 것도 한참 주저하게 된다. 심지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숟가락과 젓가락도 잘 집어지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관에 의자를 하나 놓아두세요. 그리고 의자도 팔걸이가 있는 것이 앉고 일어설 때 지지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숟가락도 손잡이 부분이 납작한 것보다는 굵은 것이 사용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주방 싱크대와 서랍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구와 어르신들을 위한 수저,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컵, 식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흡착 그릇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사용하는 가정은 드물다.

가장 ‘난코스’로 꼽히는 것은 바로 단추 채우기. 좁은 시야와 둔감한 손가락 움직임 때문에 보통 때와 달리 중간에서부터 단추를 채우게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40여 분간의 체험이 끝나고 옮겨간 곳은 침실과 욕실 등이 있는 ‘개인 생활 체험 공간’이다. 흔히 ‘어르신들은 온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체험자들도 직접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다. 동그란 문손잡이는 손 안에서 자꾸 헛바퀴를 돌고, 앉은 자리에서는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에 팔을 뻗어도 닿지 않아 불편하다.

모래주머니 달린 특수장비에 팔다리 천근만근
귀마개에 안경까지, 80대 어른들 신체 상태체험
휠체어 타고 계단 올라 세상과 접할때는 ‘공포’

마지막으로 ‘보행 체험 공간’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휠체어를 타고 경사면을 올라보다 보면 바깥세상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가 된다. 1시간에 걸친 체험이 끝나고 특수 장비를 풀고 나자 입에서는 절로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온다.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당혹스럽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었다는 반응이다.

김영희(20)양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설계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장명화(21)양은 “가까이 사시는 할머니댁을 얼른 찾아가 문 손잡이를 바꿔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체험에 참가한 소준영(40) 교수(부천대 실내건축과)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어르신들을 위한 건축설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복지시설 디자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매 학기 센터를 찾아 체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10월 개관한 노인생애체험센터는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체험에 참가했으며, 전화나 인터넷(www.aging-simulation.or.kr)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 (02)712-640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7. 영국의 차 무역

영국이 차의 제국이 된 배경은 동인도 회사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동인도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 받고 아시아 무역에 집중하면서부터다. 초기에 수입된 물품은 주로 후추와 인도의 옥양목을 비롯한 섬유제품이었다. 하지만 영국 내 직물 생산업자들의 반대로 인해 희소성이 높은 차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게 됐다.

차가 무역의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영국은 차에 대한 특별한 경제 정책을 펼친다. 회사 소속의 선박들은 선박마다 공간을 할당 받아 개인적인 차 거래를 했다. 선장들은 가급적 많은 양의 차를 자기 배에 가득 싣기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이것은 1톤 분량의 차에서 얻은 이익이 몇 년간의 월급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선장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차 무역으로 차의 공급량은 증가되지만 품질은 저하되기도 했다. 차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불순물을 첨가하기도 했다. 이런 혼합 행위에 많은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했으며, 공식적인 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차 거래를 금지한다.

한편 동인도 회사는 런던의 템즈강가 항구에 차 시장을 열어 차만을 위한 전문 경매장을 설립한다. 대형 상선이 도착할 때마다 경매가 열리게 되지만 자주 열리지는 못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게 되었으며 차의 수입량이 많아지면서부터는 거의 매주 열리게 되었다.

품질이 낮은 차는 가격이 저렴하여 주로 일반 사람들이 구입했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마시기에 차는 비싼 음료였다. 17세기 말 차의 가격은 커피에 비하여 5배 정도 고가로 팔렸다. 18세기에 중국에 무역 거래소가 설치되면서 차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은 확장됐다. 또한 경쟁국인 네덜란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17세기 초부터 차에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부과했으며 네덜란드에서 차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결국 네덜란드는 해상활동이 쇠퇴하면서 1795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해산 되고 영국이 차 무역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이런 무역 정책과 함께 영국의 차 소비에 영향을 준 배경은 왕실에서 차를 마시게 된 것이다. 찰스 2세와 결혼한 포르투갈 존 4세 국왕의 딸 캐서린은 차 애호가로, 차 문화를 가지고 영국 왕실로 들어왔다. 지참금으로 포르투갈의 무역 주둔지와 많은 양의 금과 설탕과 한 상자의 차를 가져왔다. 작은 중국 도자기 잔에 담긴 차를 마시는 왕비의 모습이 다른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전해졌다.

동인도회사, 템즈강 항구에 경매장 설립
왕실서 마시며 귀족 부인들 사교 필수품 돼


캐서린 왕비

이처럼 차는 값비싼 ‘귀족 부인의 음료’가 되었다.

당시 커피와 차를 함께 판매하는 커피 하우스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값비싼 차를 하인들에게 사오게 하기 싫었던 여성들의 심리를 알아차린 토마스는 커피 하우스 옆에 따로 차 가게를 열었다. 가정에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는 마른 찻잎 뿐 만아니라 잔에 음료로도 팔았다. 귀부인들은 비싼 값의 차를 구입하고 매혹적인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가게에 즐을 섰다.

이처럼 차는 가정에서 마시는 품격 있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차를 준비하는 방법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차와 다기 세트는 귀족 부인들의 사교에 필수품이 되었다. 차와 함께 곁들이는 음식들이 중요한 화제가 되기도 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제적공고

성 명 : 정종철
법 명 : 서봉(西峰)
주민등록번호 : 560929-1822436

상기인은 본 종단의 종도로써의 종헌종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승려로써의 자질이 부도덕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적합니다.

불기 2551(2007)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감찰원장 상 산

인감갱신공고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478번지
사찰명 :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흥국사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흥국사 직인


흥국사주지인

상기 인감을 2007년 2월 12일부로 변경함을 공고합니다.

불기2551(2007년) 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흥국사
주지 월 봉(손태응)

봉 축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선포 및 법요식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臨齊宗)의 개조(開祖)이신 임제 의현(義玄)선사(禪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선교를 수지 선양합니다. 우리나라 선종은 대개 임제종풍이었으나 태고 나옹선사 이후 부터는 확실히 임제종의 선풍을 이어 받았고, 이를 더욱 선양하고자 종단운영에 필요한 종헌, 종법을 마련하고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터전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것입니다. 삼가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니, 함께 할 종도대중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창종법요식

◆ 일시 : 불기 2551(2007)년 양력 3월 18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총본산 송원사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 전화 : 055)338-4008 / 011-868-2850

종도 사암모집

세계불교임제종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할 종도여러분을모십니다.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될 본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문의전화 055)338-4008 / 011-868-2850

한 마리 봉황처럼 위풍당당 '위봉송'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5) 완주 위봉사



위봉사 전경.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는 줄기가 붉은 적송이다. 나무줄기 윗부분을 이루는 가지와 잎이 달린 모양새를 '수관(樹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적송도 지역에 따라 크게 여섯 종류로 수관이 나뉜다. 완주 위봉사(威鳳寺)를 중심으로 전북 산악지역에 보이는 소나무는 '위봉형 소나무'라고 일컬어왔다. 이번에 두 차례에 걸친 위봉사 조사도 자연 위봉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위봉사는 고려 때 최용각(崔龍角) 거사가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라 말에 완주지역으로 이주해 온 경주 최씨 후손으로, 묘소와 재실이 위봉사에서 지척인 대아리에 있다. '위봉사'라는 이름은 최 거사가 세 마리의 봉황새가 맴돌고 있는 것을 보고 지었다고 전한다. 봉황은 고려 말에 두각을 나타낸 그의 세 아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봉사는 최씨 문중의 원찰로 초창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완주 송광사를 돌아보고 위봉사로 가다보면 고갯마루에서 위봉산성을 만난다. 풍패지향인 전주를 지키고 전주사고(史庫)의 실록과 태조의 영정을 옮겨와 보전하기 위해 임진왜란 이후에 쌓은 전주의 나성(羅城)이다.

산성에서 보면, 위봉사 뒤로 추줄산(嶅崒山)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 가파를 '추(嶅)', 험난할 '줄(崒)', 산 이름이 주는 의미와는 달리 산은 해발 524미터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이름이 걸맞게 느껴지는 것은 추줄산을 시작으로 전북의 오지들이 이어지고, 백두대간 장안산(1230미터)에서 갈려진 금남정맥이 북으로 뻗어나기 때문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추줄산을 덮고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활엽수라는 사실이다. 위봉사 뒤에 자리한 한 뼘 정도의 푸른 솔밭도 전통의 위봉송(威鳳松)이 아니라 왜송(倭松)이라 불리는 리기다 소나무들이다. 눈을 의심하며 다시 살펴보았더니 위봉송으로 짐작되는 적송 몇 그루가 왼쪽 삼성각 뒤와 오른쪽 나한전 뒤에 서 있었다.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단숨에 절로 내달렸다.

위봉사 사역(寺域)은 일주문과 담장을 경계로 경내외로 나누어진다. 위봉사 생태모니터링도 일주문 경내와 바깥의 좌우 청룡백호 구간을 조사하였다.

일주문-천왕문-봉서루를 이어주는 진입로 좌우로 조경공간이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베니철쭉을 비롯하여 남천, 라일락, 두충나무, 중국단풍, 노무라단풍 등 외래종이 눈에 많이 띄어 아쉽다. 수종 뿐 아니라, 사전에 설계 없이 심은 듯 배식도 어지럽고, 식재 밀도도 매우 높다.

목본 하층에도 서양민들레, 개망초, 소리쟁이, 개쑥갓 등 귀화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우리 야생화로는 개쑥부쟁이 한 포기가 봉서루 석축으로 도망가서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봉서루 누하의 어두운 계단을 오르면 넓은 마당 가운데 노송 한 그루가 청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내의 마당 조경으로 심은 나무들로는 소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매화, 목련, 처진올벚나무, 능소화 등이 있다. 삼문 구간의 조경은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인

일주문·경내외 조경수 배식 산만하고 밀도 높아
화재 대비하기 위해 대광명전 옆에 소화전 비치
주요 수종 20년 미만, 말똥가리 등 다양한 조류 서식

데 비해, 경내 조경수들은 소가 닭 보듯 서로 정감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산만하기 그지없다.

관음전에는 해강 김규진의 글씨와 죽농 서동균이 친 난초가 있는 편액이 걸려 있다. 범종루 네 기둥에는 개구리, 물고기, 거북 등 물과 관련된 조각이 새겨져 있다. 화재를 막기 위한 벽사의 의미로 새긴 것이다.

위봉사는 다른 절에 비해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인상적이다. 대광명전 옆에 비치된 소화전은 방화수를 공급하고, 방화사(防火沙)는 방화수로는 진화가 잘 되지 않는 화재 때, 소화기는 초기의 진화에 적당한 도구이다.

관음전 내원을 지나 삼성각으로 오르는 계단에 줄사철이 푸른색을 자랑하고, 삼성각 앞엔 옷을 다 벗은 배롱나무가 누드로 서 있다. 삼성각 주위로 작은 군락을 이룬 키 큰 리기다 사이에 위봉송 몇 그루가 섞여 있다. 나한전 뒷산자락 위봉송은 수관이 제법 의젓해서 위봉의 원형을 많이 닮아있다.

우리나라 소나무의 수관 형태는 지역적 차이, 개체변이, 생장속도 등에 따라 동북형, 금강형, 중남부평지형, 중남부고지형, 위봉형 등 6개형으로 구분한다. 위봉송은 수관이 좁고 줄기생장이 다소 저조하지만, 수형이 전나무를 닮아서 곧고 멋지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80년 전에 그득했던 위봉송이 위봉사 주변에서조차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현재 위봉사 주변은 활엽수와 외래종 소나무가 판을 치고 있다. 활엽수림 사이에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는 소나무들은 위봉송이 아니라 위봉사 마당에 있는 노송의 후계들로 보인다. 6. 25로 폐사 직전에 처한 위봉사를 원력으로 살려냈듯이 이제 위봉송 복원에 원력을 쏟을 때가 아닌가 싶다. 자연천이도 중요하지만, 문화역사보존지구의 숲은 생태계획 아래 복원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관음전 뒤쪽 출입문을 나서면 2백여 미터 가량 포행하기 좋은 숲길이 나 있다. 식재된 잣나무 군락 빼고는 거의가 당단풍, 산벚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감태나무 등 활엽수들로 덮여 있다.

전설에 따르면, 위봉사 창건주인 최 거사가 절터를 찾기 위해 등나무 덩굴을 잡고 위봉산에 올랐다고 했는데, 어딜 돌아보아도 등나무는 눈에 보이질 않는다. 등나무 대신 다래나무가 한 두 줄기 보일 뿐이다.

위로는 위봉사의 상수원구역으로 철조망들이 덫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다. 왼쪽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수량이나 규모로 보아 계류급이다. 햇볕이 투영된 맑은 소에는 버들치들이 낮놀이를 하고 있다.

공양간 뒤로 난 출입문을 나서면 숲길이 나 있다. 관음전 뒤로 난 숲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참나무류로는 갈참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등이 있다. 그 밖의 활엽수로는 다릅나무, 서어나무, 산벚나무, 쥐똥나무, 때죽나무, 느티나무, 생강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팥배나무, 대나무 등이 주종을 보인다. 멀리서 보면 회색빛 활엽수 바다에 한 점 파란 쪽배처럼 소나무들이 아주 드물게 서 있다. 수령은 20년 안팎이다.

다릅나무는 높이 15미터에 줄기 지름이 1미터까지 자라는 큰키나무이지만, 이곳에서 관찰되는 다릅나무는 5미터 남짓한 어린 나무이다. 아까시나무와 비슷해서 나무껍질은 적갈색이다. 숲 바닥에는 노루발풀, 까실쑥부쟁이, 산괴불주머니, 양지꽃, 점나도나물 등이 파란 잎사귀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위봉사 주변 숲은 생태적으로 이렇다 할 매력이 없다. 눈에 띄는 수종도 없고, 기억해둘 만한 큰 나무도 없고, 그냥 밋밋하다. 비록 겨울 숲이라 할지라도 숲에 들면 느낌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위봉사 숲은 그게 아니다. 나무들이 빽빽하면서도 삭막하고, 삭막하면서도 어지럽고 답답하다.

위봉산성 서문께에서 성곽길을 따라 추줄산 정상으로 임도가 나 있다. 크고 작은 봉우리를 잇는 능선 임도를 걷다보면 오른쪽 산자락 아래로 위봉사가 보이고 군데군데 허물어진 성곽도 눈에 들어온다.

이 지역의 출현하는 식물들은 사면(斜面)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중복 아래에서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가 우점하고, 중복 위 능선 부근에서는 떡갈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산벚나무 등이 주요 수종으로 나타난다. 수령들은 20년 미만으로 모두 고만고만해서 그 무렵해서 산불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똥가리가 숲 위 허공중에 맴돌고 있다. 말똥가리는 잡목림에서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겨울철새로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맹금류(猛禽類)이다. 산지가 가까운 습지나 하천이 가까운 농경지나 야산 지역에서 곧잘 관찰된다.

위봉사 주변에서 관찰된 조류로는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가 보이고, 박새류로는 박새와 진박새와 곤줄박이가 관찰되었다. 노랑턱멧새와 딱새도 포르륵 날아다닌다. 그 밖에 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가 보이고, 어디선가 꿩소리도 들린다.

추줄산과 이어진 운장산 일대에는 위봉사 스님이 등장하는 호랑이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예전에는 그만큼 인적이 드물고 숲이 깊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위봉사 숲속에는 맹수 대신 개의 배설물만 눈에 띈다. 위봉사에서는 멧토끼가 들어와 뛰어놀고, 고라니가 들어와 헌식대의 과일을 주워 먹는 아름다운 산중 풍경은 기대하기 어렵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위봉형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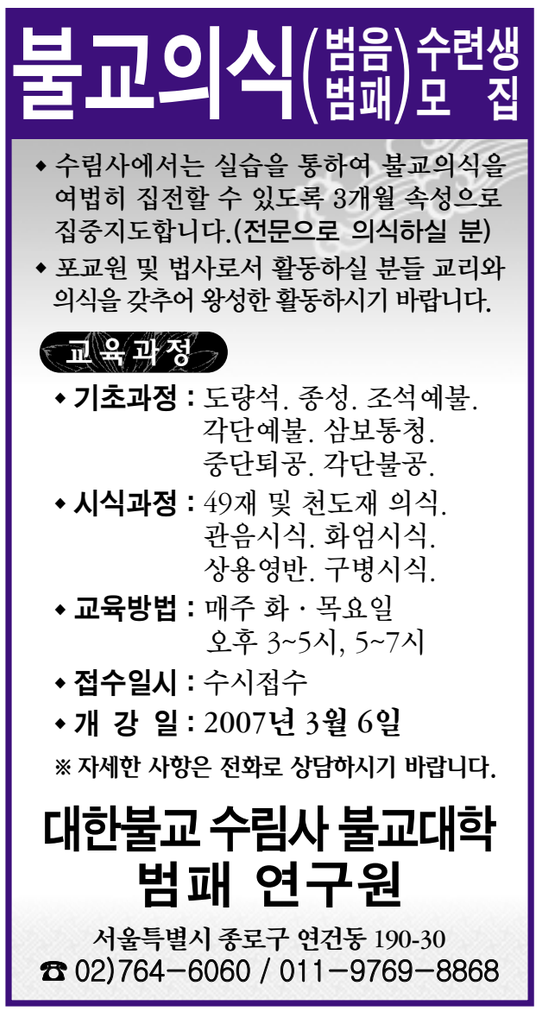


말똥가리. 사진=원우 스님



다릅나무. 사진=강영란











대행스님

어제도 내일도 없이 그냥 하루살이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백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이 된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봐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꼈단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어보셨지요. 우리가 살면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 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깼다.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報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부처는 말이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또 설법을 하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즉 교법이죠. 그건 유의 법이죠. 그리고 말없이 걸레를 빨아서 탁 닦는 것도, 말없이 걸어가는 것도, 말없이 행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둘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잘 생각해보시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해서 돌아가면서 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일부러 지어서보다도 생활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한번 해보는 거,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이고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질과학으로서 우리의 다섯 가지 능력만 해도 이 도리를 체험해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에 급작히 미사일이 건너와서 폭파될 처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고 못박으면 못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게 되고 안으로 굴리게 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안으로 굴리게 되고 자꾸 돌아가다보면 느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을 때에는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면 미사일이라도 그건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돼! 5년 있다가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5년 있다가 그 말이 한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건 자신이 자신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걸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살이로 사느니라.' 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내가 콩씨 얘기도 많이 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흘러나가고, 흘러나가서 다시 돌아서 또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데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음으로써 전달되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행해나갈 때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그게 마음대로 못하죠.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전도 그렇습니다. 우주간 법계에 그 무전줄이 있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차단을 시켜놓으면 그건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라는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지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생각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이,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 번씩들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앉은 자리가 피난처지. 육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체험을 해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도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 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큰 바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고 선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타인으로 인해서나 또는 내가 봐서나 들어서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의심이 나는 게 있다면 물어주십시오. 질문해주십시오.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시대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 조그만 조막댕이만한 나라에 또 세계적인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 말입니다. 손님네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참, 이것도 한 가정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가 또 사람이니만큼 남이 잘된다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한 나라에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를 내세우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셔도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목석인 겁니다. 목석!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다녀야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보를 끼고선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해봐야죠.

또 회사에 나가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 뭐

☞22면으로 계속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제12차 정기총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시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중진스님 및 회원스님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본 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2007년의 사업을 결의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회원 스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안건
- 불기 2550년 사업보고 및 2551년 사업 계획(안) 승인
- 불기 2550년 결산보고 및 2551년 예산(안) 승인
- 정관개정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3월 8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성남 봉국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제12차 정기총회준비위원회
전화 : 02)725-4277 팩스 : 725-4287

2007년도 영남범음범패및 작법무
제4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7년 3월 24일

무형문화재 제9호 혜룡 큰스님의 수제자이자 통도소리 어장을 맡고있는 청봉스님은 4세때 통도사 통도소리 어장이신 일호스님의 문하에 입문.
1999~2001년 대한불교 조계종 양산 통도사 상노전 직무를 역임하였고 통도사소리 보유자로써 부산불교교육대학에도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9호이신 혜룡 큰스님께 특별전수를 받아 수제자가 되어서 통도사 소리맥으로 작법무와 징,강쇠,북,호적까지 모두 지도하고 있다.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토요일 오후 4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필기구 준비)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 1개월
(요령,목탁치는법.도량석.새벽종성.조석예불.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 5개월
(상용영반.종사영반.관음시식.화엄시식.
구병시식.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 1년
(범패.징.강쇠.북.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 3년
(점안식,예수재,수륙재,영산재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 1년
(매주 수요일 오후2시) 회비 월10만원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수 있으며 인연이 있는 스님(약간명)은 본사에 숙식 하면서 배울수도 있습니다.

영남에 있는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는
사찰의 규모가 가장 크며 전통 그대로 가르치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범음범패를 공부하실 회원을 모십니다
대구영남의 대중들이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보십시다

赴焚修하되 須早暮勤行하야 自責懈怠하며 知衆行次하야 不得雜亂하며 讚唄祝願하되 須誦文觀義언정 不得但隨音聲하고 不得韻曲不調하며 瞻敬尊顔하되 不得攀緣異境이어다

◆요령 목탁은 모든 의식의 근본이 되는 법구입니다. 더불어 광쇠 태징 북 등을 범패와 작법에 맞게 다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불과 불공, 연중(특별)행사의 법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재 천도재 예수재 수륙재 시다림법문(임종염불) 등에 임하여 부족하거나 황당하셨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불상과 탱화를 모시는 점안법회는 정말 거룩한 의식이지요?
◆주요 경전과 의식의 우리말 독송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삼십구위 일백사위의 신중작법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를 배워봄은 어떠하십니까?

*이것뿐 이겠습니까? 혹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는 마십시오, 발심만 하십시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고, 의심스러우시겠지요? 와보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 가십시다.
*불교의 의식에 바르게 임하는 것이야 말로 선(禪)이며, 교(敎)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가야 하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현성에 부끄럽지 않고, 시주에 수치스럽지 않음을 추구하려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교계의 대덕 큰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의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주변의 가까운 도반과 함께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得粥祝願하되 不解其意하면 亦不壇越에 應羞恥乎며 得食唱唄하되 不達其趣하면 亦不賢聖에 應慙愧乎아 人惡尾蟲이 不辨淨穢인달하야 聖憎沙門이 不變淨穢니라

나무관세음보살

※제1기 회원모집 (삭발염의 출가승려에 한함)
※접수마감 및 교육원 개강 : 2007. 3. 9(금) 오후 2시
(회원교육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제가불자의 회원모집은 추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 육 원 : 경부선 영천IC에서 10분 거리 (慈 光 園)
※문의전화 : 054)336-4475~6 / 010)4579-0408
송청산 용화사 주지 교육원장 혜명 지운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 정회원 일동 합장

이 마음도리를 확고히 안다면 지금 금방 죽는대도 겁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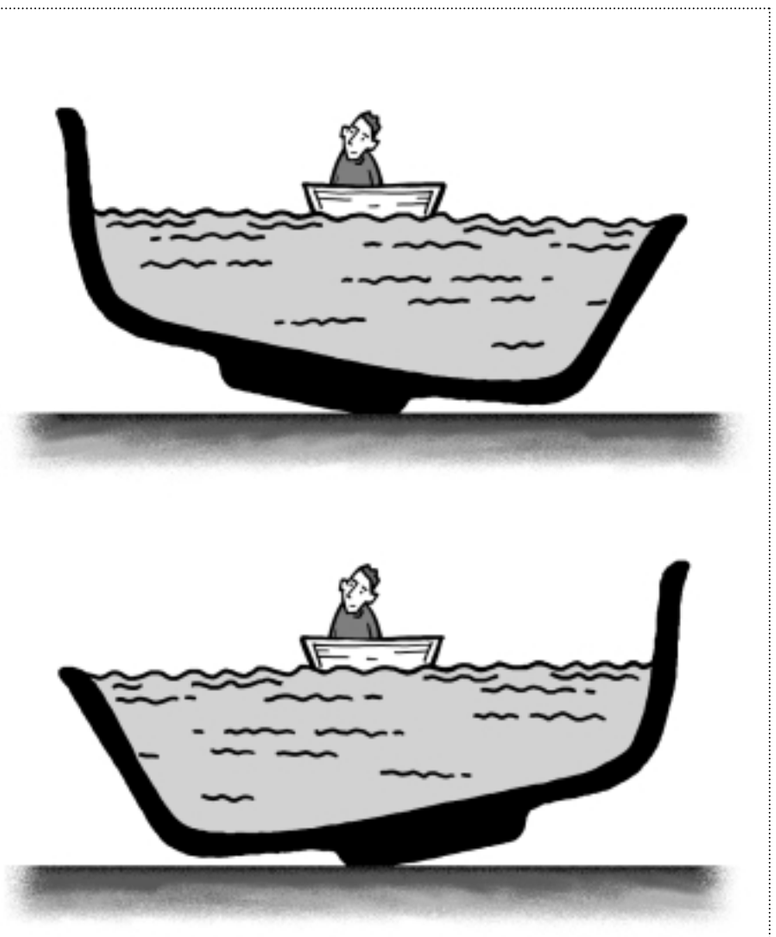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1면에서 계속

기자면 기자,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말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찍힌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게 다 공부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두들 수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해나가야지 누가 해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게 체크가 되는 거라, 자기가! 감응이 오는 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로 돌아가면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 그냥 물색 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해보지 않는 사람. '이거 뭐, 내가 힘이 없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일을….'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코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우리 유의 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 좀 무의 법을 활용해봐라 이겁니다. 마음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면에서 오고 가며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미리 잘못돼가지고 그걸 방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봐서 요런 일은 요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못박아놓을 수 있는 대로 못박아놓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하지만 남도 이익하고 또 나라도 이익하고 모두가 이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체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나라 위태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기복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말만 모두 성하고 나 자신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흉보고 잘못한다 잘한다, 정도다 사도다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보니까 자기는 영 돌아다볼 사이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부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백 년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할 때나 맛을 조금씩 본 겁니다, 남이 해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쳐줬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 잘났다 그러고 해서 몹쓸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오는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한 자리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세계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왜? 각각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면 죽이려고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이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끌고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소련으로나 중공으로나 유럽으로나 어디를 막론해놓고 마음을 던져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던져놓게 되면 그것이 다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빨래를 아주 옥같이 해놓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따라서 하려도 옥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영 안 가르쳐주거든요. 죽을 때서야 '꼭꼭' 하고 죽더랍니다. 꼭 짜면은…, 허허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대로 있건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 어떡합니까? 첫째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을 하지 못하죠? 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지 않죠? 실감나지 않지? 그렇게 되니까는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도 많고 망하는 수도 많고, 이거는 말도 못하죠. 삶의 보람도 없고 그냥 허황되기만 하죠.

이 도리를 안다면 내일 죽고 지금 금방 죽는대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착잡하거나 또 허황되거나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금방 몸은 벗었으나 금방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오늘서부터는 체험을, 사는 데서 체험을 자꾸자꾸 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입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시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미리 막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려면 미리 막아두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픈 걸 금방 낫게 해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또 이 몸을, 옷을 벗기고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여놓은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밑져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되면 벌써 손해야. 그러니 이것을 한생각 내서 다시 설치하게끔 만들거나 기계를 다시금 똑같을 수 있게 조립을 하거나 한생각 내면 웃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게끔 돼 있다 이거야. 돼 있는 연후에 가서 말만 띄우면 되는 거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떠넣어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밥숟가락을 떠넣어 드려도 먹을 줄을 모른다면 이걸 어떡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나는 아주 귀찮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니는 회사에 무슨 큰 일이 생긴다면 큰 일이니까 아예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보시면서 잘 굴려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신념이 가게끔요.

여러분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후원을 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불교의 주역이고,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 전문지도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신심과 정성이 한국불교에 밑거름이 되고, 불자님들의 거룩한 보시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이룩하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이런일을 합니다.
- ▶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년2회 여름 · 겨울)
- ▶ 대한불교교사대학 운영
- ▶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 ▶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 군 불교 포교 및 사찰행사 지원
- ▶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모임 운영
- ▶ 찾아가는 법당(법회 · 불교학교) 개설 및 운영
- ▶ 연등축제 연희단 율동 기획 및 보급 등
- ▶ 어린이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 개최

만인동참에 참여 바랍니다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사찰이나 단체별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 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 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 계좌번호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지로번호 : 7670909

※ 본회에서 같이 활동하실 지도자를 모십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신도회관 405호
TEL : (02)738-7860 FAX : (02)738-7863 www.burec.org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제1호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맑고 고운 천진불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본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전
- 불교어린이지도사응시자격부여(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알선(유급)
- 수강료 일시불 납부 시 10% 할인
- 스님, 포교사 30%할인
-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20%할인

- **모집대상** :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포교사, 어린이법회지도교사
- **교육기간** : 불기2551(2007)년 3월 ~ 불기2552(2008)년 2월 (1년 과정, 여름 · 겨울 방학)
- **개 강 일** : 3월 22일 (목) (입학식)
- **교육장소** : 조계사 교육관 (매주 수 · 목 오후 7시~9시)
- **모집기간** : 3월 20일 까지 / 접수방법 :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 **문의전화** : 본대학 교무처 (代)(02) 739-4967 www.burec.org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게시판 이용)

불기2551년 어린이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

언 제? 불기2551(2007)년 4월 15일 일요일 **누 가?**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어린이 모두
어떻게? 찬불가 한곡을 정하여 율동을 창작한 후 4월 7일까지 참가비 5만원과 함께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총재 혜 총 / 회장 송 묵



불자 세상보기

이 병 인
부산대 지역환경공학과 교수

생명 위협하는 '생활오염'

미국의 어느 시골마을에도 봄은 와 만물이 싹트고 생동하고 있건만, 새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다시 생각되는 시절이다. 환경분야 노벨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수상할 사람이 바로 레이첼 카슨여사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생물농축의 문제점을 세계 최초로 공론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수은 등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공단이나, 폐광지역 등 일부 오염된 지역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 야채 등 농산물과 어패류 등 수산물 중의 중금속오염이 증대되고 있으며, 화장품 등 산업용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무방비하게 온통 우리 생활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은 등 유해물질의 문제점은 수은 자체의 독성과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생태적인 먹이연쇄과정에 따라 지구적 순환에 의하여 확산되어 먹이연쇄과정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런 의식없이 필요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를 결국 인간 스스로 받게 되는 환경오염의 악순환과 잘못된 과보를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금속오염이 무서운 것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발생하게 되는 만성중독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문제점을 확인했을 때에는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다시 걱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서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노출되어 직간접적 농축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결과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환경과학원, 식약청 등의 발표에 의하면, 주요 생활농산물과 수산물들, 화장품과 산업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에 걸친 중금속오염 실태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린이의 경우 혈중의 수은농도가 미국 등 선진국의 10여배이고, 어른의 경우에도 8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은에 의한 오염은 직접적으로는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의한 결과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미 환경 중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환경이 오염된 증거일 수가 있다. 자연계의 자연적인 변화과정에 의한 수은의 노출은 드물고,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물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서서히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가 결국 생태계 먹이단계의 최종독점자인 인간에게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출되는 수은 함량은 아직 미량으로, 그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연계에 노출된 수은은 그대로 농축되어 인간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여 이제부터라도 수은의 잠재된 위협으로부터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수은함유량이 높은 상어와 황새치 등 생선류와 농산물 등을 피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중금속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유해함유량에 대한 기준 제정 및 표시, 유통 과정 및 소비량에 대한 관리 및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다원화된 정부부처들이 서로 잘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불자의 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11일부터 장장 32주간 '법화산림법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이 테마법회를 기획해 장기간 법석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불자들이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오늘날의 불교가 그만큼 활발하다는 얘기다.

법회가 없는 사찰은 대중들이 모일 일도 없다. 수행을 목적으로 산문을 폐쇄하고 정진에만 몰두하는 사찰이 아니라면 모든 사찰이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하화중생'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찰이 법문과 특강 등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회보다는 각종 재일 의식과 불공 등 전통 신행에 근거한 일상법회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불자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바람과는 달리 법회의 형태는 의례적이기 일쑤다. 그래서 사찰에 자주 나가는 불자라 하더라도 법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적은 것이 불교의 현주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도심 사찰의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입됐던 백고좌 법회 등이 성공을 거둔 것은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는 좋은 법석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

전국비구니회의 '법화산림법회' 기획법회의 새로운 '위상' 되길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기간 진행되는 큰 법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홍보 그리고 공간적 여건과 시간의 효율성 등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법석에 오르는 스님들의 사자후가 참가자들에게 '큰 공부'로 심어져야 한다. 최근 불교계에서 자주 보는 대형 기획법회들은 이 같은 조건들을 일정부분 만족시키고 있으며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의 '법화산림법회'는 기존의 대형 기획법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법회를 주관하는 것도 <법화경>을 주제로 릴레이 법석을 이어가는 것도 그 주역이 비구니 스님들이란 점이 가장 돋보인다. 그간은 계율과 관습에 얽매여 비구니 스님들이 큰 법회에 초청되어 사자후를 토하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수행의 현장이나 학계 포교일선 문화계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과 역할은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 이번 법회는 지금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계 안팎에서 보여준 활동력을 보다 공고히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이번 법회가 갖는 의미는 전국비구니회의 내적 역량과 결속력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이다. 전국비구니회는 회관 건립 이후 종단의 가사불사를 맡아 진행하고 크고 작은 법회와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 왔다. 이번 법회를 통해 그간의 역량을 총 결집해 회향하는 날까지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조를 유지한다면 전국비구니회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석이 있어도 대중들이 모이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 법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홍보와 치밀한 준비 그리고 내적인 결속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 법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종교자유' 칼럼

1. 종교가 뭐길래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전체 인구의 53% 종교생활… '존중' 깨지면 사회분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개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 걸음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물으면 백인백답이기 십상이다. 어떤 이들은 돈이,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 또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간다.

한편 그것들만으로는 뭔가 허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도 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불교 22.8%, 개신교 18.3%, 가톨릭 10.9%, 기타 1.0%로 총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주와 생명, 고통의 근원이 궁금하고 두렵기도 해서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네 삶이 각박해서가 아닐까 싶다.

궁극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종교마다 다르게 설명할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 '자신은 적게 가지되, 이웃과 생명을 돌보라'는 가르침 말이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없는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존경스럽기도 하다. 또 종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좋다. 10여 년 전부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교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독교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겹게 한다. 또 1998년부터 가톨릭 수녀, 불교 비구니스님, 원불교 교무들은 삼소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달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고, 지난해에는 19일 동안 각 종교 성지를 함께 순례하는 등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물게는 상대 종교의 성직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여성성직자 모임 '삼소회'가 지난해 인도성지순례중 참선하는 모습.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평화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도 여러 종교나 전통이 함께 공존 가능하려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념 못지않게 다른 전통이나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실세계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지구상 어디에도 우리나라만큼 여러 종교가 균형 있게 공존 · 공생하는 곳은 없다고들 하고 종교인구도 증가 추세라는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가기보다는 증오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것 같다. 어느 학자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종교로 인해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큰 '불안한 동거'라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돼서일까. 그것은 종교가 열릴 때는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닫힐 때는 바늘 끝도 안 들어갈 만큼 좁기도 한 것이 또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극소수 광신도들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끔 일어나는 사찰 방화와 불상 파괴는 또 얼마나 소모적인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것은 '서구 역사는 400여 회의 종교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종교가 전쟁에 직간접으로 깊숙이 개입되어 온 사실만으로도 짐작이 간다. "교만한 독선의 열매는 곳곳에서 타종교인들에 대한 무례와 공격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신앙행위로 치부되는 무식함이 만연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영어에 존댓말이 없으니 예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You'라고 말하니 버릇없는 상놈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호주에서 14년 동안 내가 경험한 그들의 예의범절은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철저하고 엄격하다. 다만 그 내용과 방법이 우리들과 다를 뿐이다"라면서 종교 간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호주연합교회 올드 통가비 목사의 말이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 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화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종교일 수는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선택한 종교가 오히려 자신을 가두고 남과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종교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종교가 뭐길래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할까. 그러나 개인적인 광신적 행위보다 우리를 더 힘겹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 체제화 · 권력화 된 종교계의 독선과 공격성이 아닌가 싶다. 특히 국민 누구나 공유해야 할 공공영역에서의 종교계의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종교적 차별 및 소외가 우리가 우려할 사안이다. 최근 수 년 간에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선진사회는 결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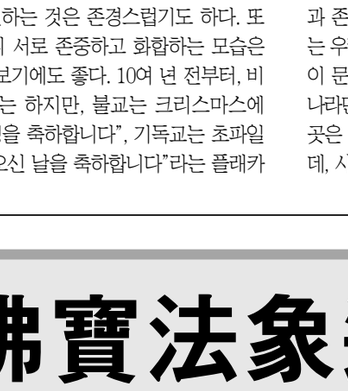
과연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지금은 뜸하지만 한때 목이 잘린 단군상도 초등학생들에게 보이기 거북한 장면이었다. 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공공연히 협박까지 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만난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족 구성원 또는 직장 동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갈등은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억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제 불이 호위하시며 세세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면 불보법상도 (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몹쓸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소재 : 팔 괘 - 고급 무늬목재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보급가 : 2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불지종가 통도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원 학인모집 공고

조계종 교육원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강원으로 선정된 불지종가 통도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50회 졸업생을 비롯하여 수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시대를 이끌어 갈 학인스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방부 바랍니다.

모집학과

치문과 ○○명, 사집과 ○명

준 비 물

가사(오조 대가사), 장삼, 발우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4매(사미의제, 대가사 복장)
7. 입학금 : 20만원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07년 3월 29일 - 4월 7일
(음력 2월 11일 ~ 2월 20일)

· 서류심사 및 면접 :
4월 7일 오후 1시 감로당

문 의 처

055)384-2035(지객스님, 원통방) · 055)383-2363(강원, 감로당)
055)382-7182(종무소 교무국)

불기 2551년 3월 일

영축총림 통도사 운영위원장 산옹 지은 · 학장 혜엄 우진

전국비구니회 법화산림

비구니 32법사스님 특별초청법회

금번 전국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의 진흥 발전과 불자님들의 신심고취를 위하여
'법화산림' 특별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스님은 관세음보살 32응신을 상징하여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된
32법사스님을 초청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합니다.

▮일 시 : 2007년 3월 11일 ~ 10월 21일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 대법당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부근)

▮문 의 : 02)3411-8103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금강역사석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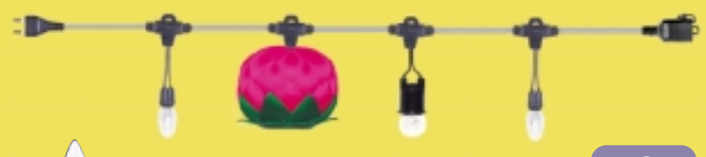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재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무료입장

우리 불교와의 특별한 만남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DHISM EXPO 2007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문화, 산업 전시회!
한국불교의 모든 문화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2007한국불교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후 원 : 문화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진흥원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02) 706-3493

전시내용 : 불교건축,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 · 전통식품, 다기?다구, 불교장례문화 등
체험행사 : 법회, 서각체험, 도예체험, 한지공예체험, 연등만들기체험
문화행사 : 범패 및 선무도 시연 외 다양한 문화 공연 등

※ 자세한 프로그램 및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자 분들에게는 행사 기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